

기업구제·금융시장 안정에 100兆 푼다

증권펀드 10.7조·채안펀드 20조 내달 본격 투입
단기자금시장 7조...대기업은 자구책 있어야 지원
ISA 가입대상 확대...투자대상에 주식 추가 검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관련기사 3·4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차 때(50조 원)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면서 "다만 대기업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이 있어야 지원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에 직접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데 58조3000억 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로 확대했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 원도 즉시 가동한다.

이와 동시에 10조 원을 신속히 추가 조성해 총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출자 금융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 원 규모의 1차 캐피탈 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달 초부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채권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6조7000억 원 규모로 신속 지원한다. 특히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업·금융시장 안정 자금 100조 원	
기업경영자금 지원	→ 51.6조 원
금융시장 안정 유지	→ 48.5조 원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 원
P-CBO 및 회사채 발행	 10.8조 원
CP 등 단기자금시장	 7조 원
증권시장안정펀드	 10.7조 원

아울러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우선 매입을 통해 4조1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우선 증권사에 대해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 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2조 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다.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운용할 계획이다. 1차 캐피탈 풀 규모는 3조 원 내외이며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세계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 세계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 이상으로 규모가 큰 대책이 나왔다"며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규모가 전보다 2배 이상 크고 CP도 매입할 수 있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코스피 8.6% 폭등

24일 코스피가 8% 넘게 급등하며 16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보다 8.26% 오른 480.4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6.9원 내린 1249.6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 100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7.51포인트(8.6%) 오른 1609.97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연합뉴스

방역 지침 어긴 학원 '강제 휴원'

교육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後 의심증상 학생 등교 중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어긴 학원은 문을 닫게 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다.

▶관련기사 21면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적 허용 시설인 학원이 1~2m 거리두기 등 필수 방역지침을 준수했는지 점검토록 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내

리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1일 지자체가 PC방·노래방·학원 등에 다음 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서울시·경기도·전라북도가 제한적 허용시설에 학원을 포함했다. 정부는 집합금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원 등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 확진자 발생 시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4월 개학을 앞두고 '유치원, 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해 모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등교를 중지(병결 처리)하

고,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증상이 나타나면 귀가 조치한다.

교육부는 개학 후 확진 및 코로나19 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총 758만 장을 비축할 예정이다. 개학 후 학교들은 학생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벌여트리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한다.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간을 다르게 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한다.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학 일정에 대해 "4월 6일에 할 수 있을지 지금 속단하긴 어렵다"며 "개학 날짜가 결정되면 대입 일정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코로나19' 관련 2·3·4·5·6·9·13·14면

IMF "올 세계 경제 -1.5% 성장"

이달들어 3차례 하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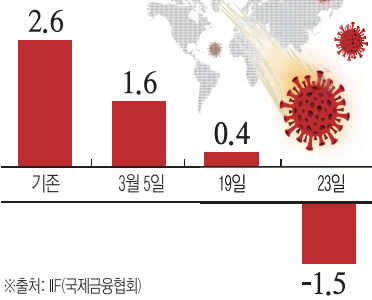
국제금융협회(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4%에서 마이너스(-)1.5%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주요 금융사 450곳 이상이 가입한 IMF는 2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유가 전쟁, 선진국 및 신흥국 신용 스트레스 등의 악화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성장률 전망치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들어 세 차례나 하향 조정했다. 5일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1.6%로 제시했다가 이달 19일 0.4%로 낮춰 잡았다.

올해 주요 지역별 성장률은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각각 -2.8%, -4.7%로 전망됐다. 아르헨티나(-3.1%), 멕시코(-2.8%), 남아프리카공화국(-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출처: IMF(국제금융협회)

2.5%) 등도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충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격리조치가 해제된 뒤 소비와 투자가 빠르게 반등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2009년(-0.1%) 이후 11년 만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이커머스시장 뛰어든 삼성·LG

삼성전자 '삼성픽켓' 론칭 준비 LG전자 '핑큐 앱' 통해 판매·중개

유통업계 주요 사업 영역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 제조업과 광고업 등 이중(異種) 산업군에서 활동하던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든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주 활동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하는 데 따른 신시장 창출 목적으로 풀이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이커머스가 결합된 마케팅 플랫폼 명칭을 '삼성픽켓(Samsung Fitket)'으로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초 베타 서비스를 시

작하면서 '삼성픽(Samsung Picc)'이란 이름을 사용했는데, 최근 '삼성픽켓'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 론칭을 준비 중이다. 픽켓(Fitket)은 '핏 마이 마케팅(Fit My Marketing)'을 줄인 이름이다.

삼성픽켓은 인플루언서에게 콘텐츠 기획 및 제작과 확산에 대한 권한을 제공하고,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을 통한 홍보채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등과 연동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도 지난달 28일 정관 변경 등 안건을 고시하며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승인될 전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광파오븐,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식품, 세제 등 일반 제품을 'LG 핑큐 앱'을 통해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형태의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LG 핑큐 앱 스토어를 오픈하고 고객들이 LG 가전제품의 소모품, 액세서리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판매 품목을 늘려 이커머스 사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광고 업계 1위 기업인 제일기획도 최근 '제삼기획'이란 이커머스 사이트를 오픈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넘어온 기존 오프라인 고객이 앞으로 온라인에 머무르며 재구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마스크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삼성그룹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삼성은 국내 마스크 제조기업의 생산량 증대를 지원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마스크 33만 개를 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삼성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경험을 활용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추천받은 △E&W(경기도 안성시) △에버그린(경기도 안양시) △레스텍

E&W·에버그린 등 3개사에 금형 제작 등 생산기술 지원
해외 확보 마스크 28만 개 등 총 33만 개 대구지역에 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 3개 마스크 제조 기업들에 3일부터 제조전문가들을 파견해 기술 지원을 시작했다.
삼성의 제조전문가들은 해당 기업들이 새로 설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기존에 보유한 생산 설비를 활용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현장 제조공정 개선과 기술 전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삼성은 신규 설비를 설치해 놓고도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장비 세팅을 하지 못한 일부 기업들의 장비 세팅과 공장 가동을 지원했다.
특히 삼성은 일부 제조사가 마스크 생산



삼성전자가 마스크 생산 중소기업 E&W를 찾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비 공정 개선, 원부자재 이동대차 제작, 마스크 제작용 금형 제작 등을 지원했다.

에 필요한 금형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금형을 제작해 지원하기도 했다.
해외에 금형을 발주할 경우 수급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나, 삼성은 광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에서 7일 만에 금형을 제작해 제공했다.
앞서 삼성은 2월 화진산업(전라남도 장성군)에 스마트공장 전문가들을 투입해

마스크 제조라인 △레이아웃 최적화 △병목공정 해소 등 설비 효율화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4만 개에서 10만 개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삼성은 또 계열사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마스크 28만 개, 고객사로 부터 기증받은 5만 개를 모두 기부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계열사들이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홍콩 등에서 마스크 28만4000개를 긴급 확보했다.
이를 수입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지역에 기부했다.
삼성은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마스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지는 대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유통업체를 통해 이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연결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는 중국의 한 반도체 고객사가 직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보내온 마스크 5만 개를 방역 용품 부족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위기 극복에 헌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사회에 재기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같은 방역 용품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전달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배민, 3·4월 광고료 절반 ‘소상공인’에 돌려준다

업주당 30만 원 총 250억... 취약계층에 식사쿠폰도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운동에 300억 원을 쓴다. 이 중 250억 원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24일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입점 업체 14만여 곳의 3~4월 광고료 일부를 돌려주는 등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서다.
우아한형제들이 내놓은 대책은 △업주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3~4월 광고비·수수료 50%(약 250억 원) 환원 △사

회 취약계층에 30억 원 규모 식사쿠폰 지원 △의료지원단·자원봉사자 식료품 20억 원어치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아한형제들은 3~4월 광고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한 업소당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3, 4월 각 15만 원씩)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3월 울트라콜·오픈리스트 이용 금액의 50%를 최대 15만 원까지 4월 말에 업소 계좌로 돌려받게 된다. 총 250억 원 규모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식사 지원에도 나선다. 우아한형제들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3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돈은 배민 쿠폰(5000원 권)



우아한형제들 ‘코로나19’ 극복 지원 내용

날짜	지원 내용	지원 규모
2월 25일	자가격리 판정 라이더에 2주간 생계보전비 지원 서울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6곳 방역 마스크 지원	1인당 82만 원 1200장
3월 4일	대구 지역 어린이 식사쿠폰 지원	1000만 원
3월 9일	외식업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이자 5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소독제 지원	50억 원 7만5000개
3월 24일	배민 광고 업주 대상 3~4월 광고비 50% 환원 사회 취약층 식사쿠폰 지원 의료지원단·자원봉사자 식료품 지원	250억 원 30억 원 20억 원

60만 장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1만 명이 30일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다.
코로나19 방역과 진단,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식료품도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은 20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기부금은 의료현장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 식료품을 전달하는 데 쓰인다.
이와 별도로 우아한형제들은 코로나19가 발발한 직후 내놓은 소상공인, 라이더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2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맺은 상생협약에 따라 조성한 50억 원 규모의 기금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받은 정책자금 대출(2020년 2월 13일 이후) 이자의 50%를 갚는 데 쓰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3월 말까지인 신청 기한을 연장해 연말까지 이 기금을 전액 소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음식점을 찾는 손님과 종업원, 라이더의 위생을 위해 손 소독제 7만5000개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 아카데미는 소상공인들의 노무·세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사장님을 위한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 ‘장사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마련, 진행 중이다. 이번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은 이달 노무 편을 시작으로 4월 세무 편, 7월 법률자문 편 등 총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따뜻한 마음이 모여 봄이 됩니다

환자 곁으로 향하는 의료인들의 발걸음,
달려와 방역을 서두르는 믿음직한 두 손,
감싸주고 안아주는 진심 어린 눈빛.

모두의 마음이 모이면, 봄이 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현대백화점그룹



주식·채권·CP에 48兆 투입… 코로나 공포 잠재울까

정부, 100兆 금융수혈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대의 돈 보따리를 푼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증권펀드)는 10조7000억 원 규모로 가동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채안펀드는 2배, 증권펀드는 21배 몸집을 불렀다.

또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의 '돈맥경화' 현상을 막기 위해 7조 원 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금도 4조10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에 직접 대출·보증하는 데 58조3000억 원이 동원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대책은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 때 동원하기로 한 자금 규모(50조 원)를 불과 다섯 만에 2배로 늘린 것이다. 특히 1차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금융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것이 이번 2차 때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금융위는 금융 불안 초기 단계에 대규모 자금을 쏟으며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이 그만큼 불확실하고 악화 가능성이 커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최근 경기 악화가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와 달리 실물 부문에서 시작된 점에 금융위는 주목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화(세계적 대유행)으로 소비·생산·투자 활동 둔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교역 감소 등으로 실물 부문의 급격한 위축이

초기진화 목표…지원 규모 두 배로
중기·소상공인→중견·대기업 확대
정책금융기관, 기업자금 58.3兆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유동성 공급

초래되면서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전개될 위기의 폭과 강도를 가늠할 수 없는 점까지 시장 안정화에 100조 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동원된 대책들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부활했다.

우선 시장 불안 심리가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확산되지 않게 채안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은 회사채, 우량기업 CP, 금융채 등이다. 당초 예상보다 2배 큰 규모인 데다가 기업어음도 매입하기로 해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증권펀드도 10조700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국내 증시 불안의 근본 원인인 코로나19 사태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증시 반등을 끌어내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08년 12월 채권안정펀드 집행 이후 국제 금리 및 회사채 스프레드 모두 안정화 국면에 진입한 바 있다”며 “증시안정펀드는 증시 하락을 막는 데는 기여하나 상승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분석했다.

특히 지원 대상에 대기업업을 포함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미리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2조2000억 원 규모로 도입한다. 산업은행이 총액을 인수해 채권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채 차환에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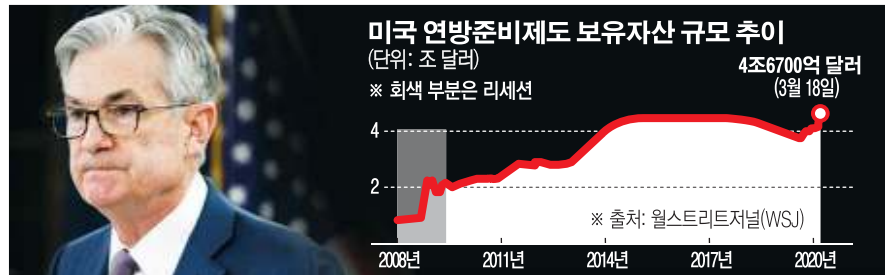
움을 겪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최근 유동성 우려가 커진 대한한공, 두산중공업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기업 지원 방식을 묻는 말에 “우선 기업이 자구 노력을 통해 시장에서 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신용 보강이 필요해지는 경우에 P-CBO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활용을 받아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CBO는 유동성의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차 회의 때 6조4000억 원 규모의 도입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2차 대책을 통해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헬리콥터 머니’ 뿌리는 美 연준 “실물경제 못 살리면 금융 역풍”

회사채 매입 등 12년 전 대책 능가
NYT “경제 위기 막을지는 미지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충격에 대응하고자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코로나19 감염자가 4만 명을 넘고 금융시장의 동요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준의 이례적인 정책으로도 경제가 새로운 금융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을지 불확실하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진단했다.

연준은 이날 일주일 전에 재개한 양적완화(QE)를 무제한으로 펼칠 것임을 선언하고, 이번 주에만 3750억 달러(약 470조 원)의 미국 국채와 25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의 파격적 조치는 이번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가동됐던 ‘자산담보부증권대출기구(TALF)’를 다시 설치해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대출 등 개인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매입한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하지 않았던 회사채 매입에도 나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투자등급 회사채를 사들여 기업 숨통을 틔울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어음(CP)과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매입 범위도 확대된다.

연준은 또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NYT는 “연준이 달러 인쇄기 예열을 다 끝내 가동할 준비를 완료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며 이날의 특별 조치는 다음 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바로 ‘경제 전반에 걸쳐 달러가 급속하게 부족해지고 있다. 그리고 연준은 이런 부족 현상을 끝내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규모로도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자주 공격하고 강달러를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모처럼 전화를 걸어 “용기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금융정책으로도 전염병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미쓰비시UFJ은행의 구리하라 히로시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문제의 근원은 실물경제에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화 방법으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단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사태 장기화 땀 조세감면 등 특단 대책 단행해야”

전문가, 경제 정책 조인
진정될 때까지 자금 지원 필요
‘일자리 유지’ 추가 대책 마련
대규모 공공투자 등 바람직

정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도등이 커진 한국 경제에 10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자 전문가들은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대책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향후 코로나19가 꺾이지 않을 경우 조세 감면, 추가 재정 투입, 대규모 공공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국면 상태에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해 확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배경하에서 100조 원 투입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채권안 정기금을 20조 원으로 늘려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은 채권 시장 안정과 거시경제 측면에서 유효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을 통한 기간산업 지원도 필요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금융시장 또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100조 원 이상 자금 투입은 반가운 일”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제한 없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포괄적인 재정과 금융정책과 기업 조세감면, 일자리 유지를 위한 추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병구 교수는 “사태가 좀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규모 공공투자까지 포함해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액수와 관련해 “100조 원은 국내총생산(GDP)의 5%가량으로 추이에 따라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전개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 수위를 봐가면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 강 교수는 “과거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는 재정건전성 문제보다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유를 한다면 환자를 살려내야 일을 할 수 있다.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활력을 되찾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경기가 정상궤도로 돌아와야 생산과 소비가 활력을 되찾고 소득·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교수는 “남은 지원방법으로 조세 감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번 정책의 효과를 보면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들이 일단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세종=김지영 기자 jye@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칼 빼 든 정부… 454곳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땀 의료·방역비 구상권 청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종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첫 대대적인 단속 결과 450여 곳에 행정명령을 내렸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2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며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날보다 76명 늘어난 9037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22일 이후 계속 100명 아래를 밑돌고 있다. 격리해제는 341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9명이 더 나와 120명이 됐다.

정부는 앞서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 중이다. 대규모 감염과 확산을 줄였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특히 다음 달 6일 개학을 가능하게 하려면 코로나19 확산을 어느 정도 차단해 줘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개학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교 내에서 집단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방역 대책이 마련이 돼 있는지, 방역대책을 수행할 물자·인력이 준비돼 있는지, 감염경로가 제대로 파악되는지, 병상이 충분한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인 22일부터 일부 교회들이 주말 예배를 강행했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은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 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에 대한

전국 ‘코로나19’ 현황

(단위 : 명) ※24일 0시 기준, () : 23일 0시 대비

확진자				검사 현황	
총환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검사중	결과음성
9037 (+76)	3507 (+341)	5410 (-274)	124* (+9)+4*	1만 5440 (+1812)	32만 4105 (+8658)

*24일 16시 현재 사망자 4명 추가, 0시 기준 사망자는 120명

일제 점검을 시행했다.

현재 이들 시설은 입장할 때 발열체크를 하고, 2m 이상의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방역책임자 배치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점검 결과 방역 지침 위반으로 3482곳이 행정지도를 받았고, 454 곳은 행정명령을 받았다. 행정명령을 받은 곳 중 교회는 442곳, 나머지 12곳은 체육 시설이었다.

한편 유럽지역 유증상자 입국이 급증하면서 전수검사 체제를 유증상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대본은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하면서,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6명 가운데 22명은 유럽과 미주에서 입국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젊어도 안심 못한다… 위중환자 ‘40대 이하’도 3명

20·30대 환자 ‘사이토카인 폭풍’ 인한 중증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오후 2시까지 124명이 확인됐다. 전날 0시보다는 13명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1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된 4명을 더하면 누계 사망자는 124명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분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망자 124명 중에는 치매환자가 34명으로 27.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진자 중) 65세 이상, 거기에 더해 기저질환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0시 기준 사망자 120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 50대 이하 사망자도 증가 추세다. 50대에선 8명, 4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나이가 적을수록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도 낮아지는 게 사실이지만, 젊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현재 위중환자 62명 중 2명은 40대, 1명은 20대다.

20·30대는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으로 인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카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과잉으로 정상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이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23일 중앙임상위원회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이해와 대응전략’ 기자회견에서 “(18일 순진)

대구 17세 환자는 중증 폐렴으로 사망했고,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전신 장기가 망가지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대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도 중증 이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들도 20대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이 상당히 있다는 경고들을 하고 있다”며 “20대는 가족 내 전파 또는 동료 간 전파 등의 전파를 매개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또 본인들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거나 예측 불가능한 중증도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자녀돌봄휴가’ 쓰기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하세요

정부, 6월까지 지원금 확대
위라벨장려금 16만~20만원 상향
간접노무비 지원금 40만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및 초·중·고교 개학이 내달 6일로 2주 더 연기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보육 비용이 절렸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 최장 10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를 다 쓰거나 바쁜 업무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녀 돌봄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위라벨일자리장려금)’을 이달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위라벨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확대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주 2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다. 혜택 대상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모든 기업 적용)도 종전 월 60만 원 한도에서 80만 원 한도로 높아졌다.

간접노무비 지원금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적용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가령 월 250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주 근무시간 40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사업주로부터 임금감소액보전금 60만 원과 간접노무비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무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입사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지원 기준이 2주 미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완화됐다.

위라벨일자리장려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출퇴근제를 함께 활용하면 자녀 돌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자녀 돌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한 번도 안 쓴 근로자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1인)에게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비과세·조세특례 폐지… 내년 예산 550조 넘을 듯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일몰 도래 항목 대대적 정비 코로나 여파 경제 회복 중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농업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5G 기지국 장비 매입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예산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을 위해 55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적극적인 조세지출 관리로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19년 국세감면액은 50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44조 원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국세감면율은 14.6% 수준이다.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7개였고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46개(6조4000억 원)다. 기재부는 내년 제도적·경기적 요인 감안 시 세입 여건이

나아지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신설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3건(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코리아세일페스타 부가가치세 환급, 중소기업 특허출원·등록·유지 세액공제)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시행한다.

또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5G 기지국 장비 매입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 조세지출 12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된다. 올해처럼 9% 이상 증가하면 550조 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안일한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 근간이 타격을 입었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보조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소상공인 지원 상담 끝 모를 기다림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소상공인들이 대출 등을 문의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구남부센터는 오전 9시부터 800명의 대기 번호를 모두 배부했다.

연합뉴스

〈첫 3개월 동안〉

한부모 육아휴직자 月 250만 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달 말부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가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를 받는다. 가령 월 2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가 31일부터 1년간 육아휴

직을 사용할 경우 총 16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종전보다 300만 원 더 받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31일부터 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회사 폐업 또는 도산, 불황에 따른 인력감축, 임불체불 등의 이유로 회사를 스스로 나온 퇴직자도 유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을 담은 근로자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시행일은 31일부터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n번방’ 처벌법 나왔지만… 팔짱 낀 국회

윤소하 의원 작년 3월 발의 1년간 심사 한 차례도 없다가 여야, 총선 앞두고 뒷북 대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불법 제작·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두고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정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졌지만 제대로 된 논의와 심사에 등한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동의청원 취지와 가장 비슷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촬영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 행위를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경제적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다.

지난달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보다 1년 전 이미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막는 법안이 올라왔지만, 만지만 쌓인 셈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없이 소위에 직접 회부됐지만, 심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회가 5일 디지털성폭력 중 하나인 답페이크(신체를 조합해 만든 합성물) 관련 개정안을 처리했을 당시 여성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n번방’ 대응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회의에서 “정부는 가장 혹독한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 공개로 음란 범죄에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24일 페이스북에 “돈을 주고 참여한 회원들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희경 통합당 의원도 ‘n번방 방지법’(가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고 소지하는 자에게도 벌금을 몰도록 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국민, 좋아요♡ 보험, 좋아요♡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바쁘게 지내며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 손해보험		KB 생명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소중한 내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일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장사고 외에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금 지급요구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8649호(2019.07.08) *주식·증권·채권·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손해보험 보상 한도: 117 KB손해보험 영업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협회의 심의필 제2019-02195호 (2019-07-09) *주식·증권·채권·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손해보험 보상 한도: 228 KB생명보험 영업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도쿄올림픽 1년 연기 가닥... 거액 베팅 스폰서들 '속얹이'

예상 수입 30억 달러... 80여개 유명기업 참여했지만
IOC '연기론' 급부상... 마케팅 계획 전면 수정 '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세계적인 확산에 올해 7월 개막 예정이었던 일본 도쿄하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올림픽 마케팅에 거액을 베팅했던 글로벌 스폰서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고 24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2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어 도쿄올림픽 취소는 배제하지만 다른 옵션들을 검토, 4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고 나서 올림픽 연기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IOC의 발표가 있자마자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가 일제히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지 않으면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완전한 형태로 올림픽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연기로 기울었다.

올림픽 최대 중계권을 보유한 미국 NBC방송도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이나 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연기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거의 사라졌다. NBC 산하에서 올림픽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NBC스포츠는 전날 성명에서 "IOC와 일본 정부,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이 어떤 결론을 내든지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NBC가 지불하는 고액의 방영권료는 IOC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여서 IOC 결정에 대한 NBC의 발언권은 크다. NBC 입장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대할 수 있는 올림픽은 주요 수입원으로, 이미 도쿄올림픽 관련 광고의 90%가 판매됐다.

그러나 NBC는 이미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설령 취소되더라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문제는 도쿄올림픽에 공을 들여온 대형 스폰서들이다. IOC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공식 후원사는 총 80개사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미국 코카콜라, 중국 알리바바그룹 등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들과 도요타, 파나소닉 등 경쟁한 46곳 일본 현지 파트너들이 스폰서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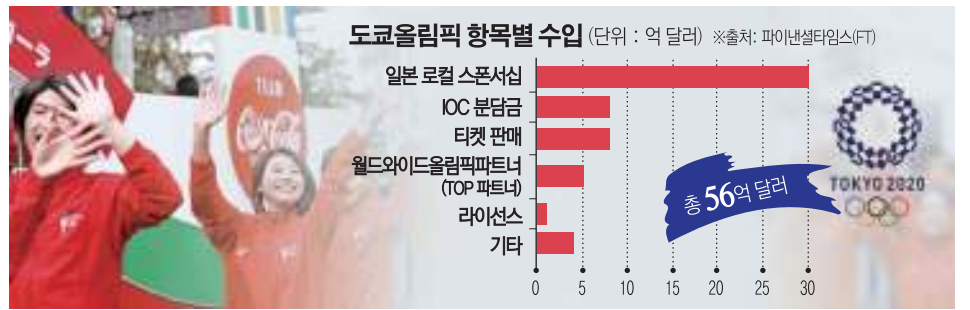
이들은 겉으로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IOC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코카콜라는 전날 성명에서 "IOC,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안전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텔도 "IOC의 결정이 어떤 것인지 가장하지 않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과 그 가족, 고객과 올림픽에 관련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도쿄올림픽에 초점을 맞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했던 이들 스폰서는 계획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져 속내는 쓰라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IOC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참여를 통한 로컬 스폰서십 수입은 30억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 것은 물론 이전 올림픽들의 3배 수준이다. 해외 기업들도 올림픽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코카콜라는 중국 분유업체 명뉴와 함께 지난해 2021~2032년 열릴 6개 동·하계 올림픽에 대해 총 30억 달러 후원 계약을 맺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도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홍보 차원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올림픽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팬데믹 진원지 '우한' 봉쇄령 해제 한숨 돌린 中 '코로나 해결사' 행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진원지인 중국이 이제는 '바이러스 해결사'를 꿈꾸는 모양이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 명든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팔을 걷은 것은 물론 해외 구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38만1499명, 사망자 수는 1만 6557명에 이른다.

전 세계가 난리통이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나라가 있다. 바로 코로나 19 진원지인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는 조만간 봉쇄가 풀릴 예정이다.

이에 중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타국에 대한 지원에 발 벗고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프랑스·영국·이집트 정상들과 연달아 통화를 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몰아내자고 촉구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프랑스와 함께 유엔, 주요 20개국(G20)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과 다른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의 방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크리스탈리나 게오



중국의 철도 차량 제작회사 중국중차(中國中車)가 오스트리아 구호단체들에 지원한 3000벌의 방호복과 15만 장의 마스크가 빈에서 인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빈/AP연합뉴스

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 중국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한다.

아울러 중국은 코로나19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비롯해 전 세계에 각종 의료장비 공급 등 지원의 손길을 내밀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 의료 장비 등을 지원했고, 파키스탄·라오스·필리핀에는 방호물자를 보내고 있으며, 이란·이라크·이탈리아 등에는 의료진을 파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는 2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美 항공사, 국내선 운항 전면중단 검토

국민 절반이 '외출금지'... 이용객 전년比 80% 급감에 고심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미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전역에서 이동 규제와 영업장 폐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장과 여행, 귀성 등 미국 내 여행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 수의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중요 수익원인 국내선마저 운항이 중단되면 미국 항공사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미국 항공업계와 연방 항공당국은 미 국내선 운항의 전면 중단 가능성을 놓고 협의 중이다. 승객이 너무 적어 운항할수록 되려 손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항공사와 백악관은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여객기를 우편이나 화물 운송으로 전용할 수도 있어 서다.

현재 미국에서는 15개 이상의 주(州)에서 외출 규제와 시설 폐쇄 등으로 이동이 제한, 미국 인구 약 3억3000만 명의 절반가량이 영

향을 받고 있다. 이에 항공사와 조종사 노조 간부, 연방 항공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폭 줄어든 항공편이 더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졌다.

이미 미국 항공사들은 국제선을 대폭 줄였고, 국내선 운항도 최대 40% 줄이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외출을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이용자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미 교통안전국(TSA)에 따르면 22일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은 전년 같은 날에 비해 80% 이상 감소했다.

23일에는 수천 편의 항공편이 결항했지만, 그중에는 승객이 한 자릿수도 안돼 운항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운항을 하더라도 이용객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뉴욕 라디아공항과 워싱턴을 잇는 항공편의 경우 승객이 3명뿐이었다고 한다.

운항정보사이트 '플라이트어웨이닷컴'에 따르면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항공사는 이날 40%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다. 일부 항공 관계자는 이용객이 더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영국도 전국민 3주간 외출금지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밤 관저에서 TV를 통해 긴급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던 중 주목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3주간의 이동제한령을 선포했다. 그동안 영국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이동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날 저녁부터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쇼핑과 운동, 치료, 필수 업무를 위한 출퇴근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도록 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제로 자택으로 돌려보내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밤 관저에서 TV를 통해 긴급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던 중 주목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3주간의 이동제한령을 선포했다. 그동안 영국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이동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날 저녁부터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쇼핑과 운동, 치료, 필수 업무를 위한 출퇴근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도록 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제로 자택으로 돌려보내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런던/신화연합뉴스

“코로나 종식 위해 써달라”... 애브비, HIV약 특허 포기

세계적 제약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약업체 애브비(AbbVie)가 통 큰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애브비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임상 시험 중인 자사의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칼레트라(Kaletra)’ 특허를 포기했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엔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구인 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은 애브비가 더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칼레트라 특허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FT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애브비는 지난주 이스라엘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칼레트라에 대해 특허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ce) 조치를 취하자



터키 게브제의 한 제약업체 연구원이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만들고 있다. 게브제/AP뉴스

아예 특허를 포기했다. 강제 실시는 정부가 국가비상사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특허 보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T는 막대한 개발 자금이 들어간 약품의 특허를 포기하는 것은 거의 세계 최초라며 애브비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절실한 상황이라서 스스로 대박 기회를 포기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칼레

트라는 원래 2026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칼레트라는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두 가지 항바이러스제의 조합으로, HIV 치료에 쓰인다.

애브비는 이미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에 칼레트라와 복제약 버전 구입을 허가했고, 지난 1월에는 중국 보건당국에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용도로 칼레트라를 기부했다.

다만 지난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에 게재된 중국 임상시험 관련 논문은 칼레트라가 질병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 논문은 첫 증상이 나타난 이후 12일 이내 약물을 투입하면 사망률이 15%로, 전체 사망률 27%보다 크게 낮고 다른 항바이러스제와 병행하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일말의 희망을 남겼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아스팔트

자동차가 달리는 아스팔트도
자연을 닮고 싶으니까

SK이노베이션이 도로를 혁신합니다

30°C를 낮춘 친환경 시공으로
에너지 소비와 미세먼지는 줄이고,
도로의 수명은 길게 늘립니다
우리의 기술이 자연을 닮은 혁신이 되도록

SK 이노베이션

보험료 인상·혜택 축소에… 소비자 ‘절판 마케팅’ 주의보

수익 보전 나선 보험업계

보험사들이 내달부터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비자 혜택 축소까지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제로 금리로 기대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익 감소를 방어하겠다는 의도다. 보험사들은 연이어 줄어드는 보험고객 혜택 이슈를 절판 마케팅에 적극 활용 중인데, 고객들의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달부터 예정이율을 현행 2.50%에서 2.25%로 0.25%p 인하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료를 굴러낼 수 있는 최소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0.25% 낮아지면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가격이 최대 10% 이상 인상은 효과가 있다.

생보사들은 인상 시기를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상품별로 보험료 인상 시기에 차이를 둘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방카슈랑스 채널은

내달 예정이율 2.50%→2.25%

보장성 중심 보험료 최대 10%↑

가격 경쟁력 탓에 인상시기 눈치

자동이체·고액계약 할인도 폐지

전문가 “보험 가입 신중하게…”

“설계사 추천 상품 장기 납입 혜택 절판 마케팅 현혹되지 말아야”

4월 1일 자로, 나머지 채널은 중순쯤 인상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화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도 4월 중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KDB생명은 5월 인하를 검토 중이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4월부터 보험료 인상을 확정했고, 메리츠화재만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정이율을 인하하

예정이율 인하 시기

생보사	손보사
삼성생명	4월(일부 상품만)
한화생명	4월(검토 중)
교보생명	4월 중순(방카채널은 1일)
농협생명	4월
미래에셋생명	4월(일부 상품만)
삼성화재	4월
현대해상	4월
KB손해보험	4월
DB손해보험	4월
메리츠화재	미정

면 보험료가 올라가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타사보다 경쟁력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 인상 시기를 늦춰 그사이에 영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여기다가 일부 생보사는 고객 혜택 축소까지 예정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현행 1%의 자동이체할인을 내달부터 폐지한다. 또 2~3%의 고액계약 할인도 함께 폐지한다.

주계약이 1억 원 이상의 고액계약이면 보험료를 일정 부분 할인해주는 혜택이다. 헬스케어서비스 축소도 검토 중이다.

한화생명도 내달 종신보험에서 제공하던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 제도를 폐지한다. 지난해 변액 유니버설GI플러스보험에 적용했던 자동이체 할인 혜택을 없앤 데 이어 올해도 보장성보험의 자동이체 할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도 지난해 4

월 종신보험의 할인제도를 축소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없애는 추세다. 보험 매출의 1%를 덜 받는 만큼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정이율 인하와 함께 최저보증이율도 함께 내려갈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소비자 혜택 축소 이슈를 이용해 절판마케팅에 적극 활용 중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당국이 상품개정 시기 연기를 용인해준 만큼 절판마케팅이 더욱 성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절판 마케팅에 현혹돼 충분한 고려 없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주로 추천하는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은 장기간 납입해야 혜택을 본다”며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니, 영업현장에서의 절판마케팅에 현혹되는 것보다 가입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지연 기자 sjy@



신한금융 임직원들이 24일 대구·경북 의료진과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생필품·밀 키트(KIT) 50만 개를 배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

신한금융 ‘코로나 극복 기부 캠페인’ 14억 펀딩

신한금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진행한 ‘호프 투게더(Hope Together)’ 캠페인’이 시작 20일 만에 14억 원을 펀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5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한다.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1차 펀딩에는 지금까지 2900여 명의 서포터스와 조영봉 회장과 진옥동 은행장, 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첫 번째 캠페인 사업으로 대구·경북 의료진과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생필품·밀 키트(KIT) 50만 개를 전달했다. 다음 달 16일부터 5월까지 2차 펀딩을 진행한다. 기부금 전액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마이뉴스 통장〉

대기업도 비상… ‘마통’으로 1.8兆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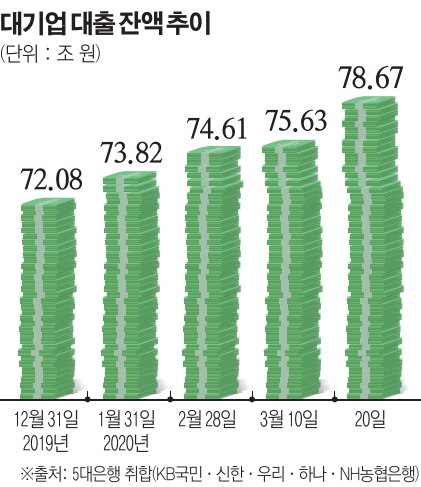
4월 만기 회사채 6.5兆 ‘최대’
한도대출 활용 유동성 확보 총력

쪼갠 대기업들이 은행권에 손을 벌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채권·주식시장이 요동치자,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4일 관련 업계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이달 20일 현재 78조673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1조7819억 원 늘었다. 연초 효과에 1월 대출 잔액이 늘긴 하지만, 3월 들어 1조 원 넘게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기업들은 사전에 받아놓은 한도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개인으로 따지면 예전에 개설해 뒀던 마이뉴스 통장(마통)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 변동성 확대로 직접자금 조달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돌아오는 6조 원이 훌쩍 넘는 회사채 만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6조5495억 원이다. 통계를 작성한 1991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4월 회사채 위기설’의 배경이다.

이에 이날 정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채권시장안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2배 규모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우리금융, DLF사태 딛고 ‘경영 안정’ 본궤도

권광석 신임 행장 공식 선임
신뢰·안정·혁신 경영목표 제시

손태승 회장 우호지분 과반
국민연금 반대에도 연임 유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혼란에 빠졌던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권광석 행장이 지주사 설립 후 첫 은행 방향기를 잡은 데 이어 손태승 회장의 연임도 유력시되고 있다.

24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권 행장을 공식 선임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별도의 취임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그는 DLF 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은행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3대 경영방침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조직안정, 영업문화 혁신을 제시했다.

권 행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냉철

한 반성과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항상 고객을 최우선시 하는 근본적 방향기를 잡은 데 이어 손태승 회장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손 회장에게 쏠린다. 우리금융은 25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그의 연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징계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시선은 벌어졌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분 7.71%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와 캐나다연금, 온타리오 교직원연금, 플로리다연금 등 푸본생명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

들도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연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지분 17.25%)가 우호 세력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IMM프라이빗에쿼티(5.62%)와 푸본생명(4%), 키움증권(3.74%), 한국투자증권(3.74%), 한화생명(3.74%), 동양생명(3.74%) 등 과점주주의 지분을 합하면 25%나 된다. 이들 대표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사외이사들은 앞서 손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여기에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6.42%와 추가 우호지분까지 더해지면 연임안 찬성표가 절반이 넘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 우리사주 조합 등의 우호적인 지분이 연임 반대 지분보다 많은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등 안팎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임을 통한 안정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김범근 기자 nova@

주택연금 가입 연령 만 55세로 낮춰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6억 집 소유자 月 92만원 수령

다음 달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월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 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

로 산정된다.

가령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 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 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 원만큼 많아지게 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 2000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 3000억 원이다.

주택연금 연령별 월지급금		(단위: 만 원)						
연령	집 값	55세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1억	15	21	25	31	38	49	65	
2억	31	42	50	61	77	98	130	
3억	46	62	75	92	115	147	195	
4억	61	83	100	123	153	196	259	
5억	77	104	125	154	192	245	324	
6억	92	125	151	184	230	294	384	
7억	107	146	176	215	268	327	384	
8억	123	166	201	246	294	327	384	
9억	138	187	226	272	294	327	384	

※ 2020년 가입 기준

아울러 6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해외공장 잇단 섰다운… 글로벌 공급체인 ‘흔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동을 멈추는 한국 대표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 ‘없어서 못 파는’ 공급부족 사태도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는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라질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북부 아마조나스주(州) 마나우스 공장의 가동을 이날부터 2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나우스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마나우스 공장에 대해 대대

삼성전자, 브라질 마나우스 공장 방역 위해 29일까지 멈춰
현대차 상파울루 공장 내달 9일까지… 伊 포스코 ITPC도
재계 “제품 공급 심각한 타격…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필요”

적 방역 작업을 벌여 공장 재가동 이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파울루시에 있는 중남미 총괄법인과 브라질 판매법인은 이날부터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다만, 남동부 상파울루주에 있는 캄피나스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마나우스 및 캄피나스 공장은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 등을 만들어 중남미 시장에 공급하는 중추적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7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마나우스 법인은 지난

설 명절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한 곳이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소재한 현대차 공장도 주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상파울루 주정부는 21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일간 상거래 행위를 금지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를 비롯해 브라질에 진출한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BMW, 토요타, 혼다 등 대다수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차 상파울루 공장은 연간 18만 대

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현대차 브라질 법인은 올해 생산능력을 3만 대 늘려 21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 해외 주요 생산 시설들 역시 줄줄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탈리아 북동부 베로나 인근에 있는 포스코 ITPC는 26일(현지시간)부터 내달 3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포스코 ITPC는 연간 4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를 가공하는 공장이다. 이번 조치는 현지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 중단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필리핀에 있는 POSCO-PMPC 공장은 17일부터 31일까지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강판 가공센터 POSCO-MKPC 공장은 18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가동 중단 시한은 31일까지다. 이외에도 인도에 있는 델리가공센터와 푸네가공센터 또한 31일까지 가동을 멈춘다.

해외 생산기지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공급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재계에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현대자동차의 경우 부품협력 업체들이 나서 최대 주 60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례적인 경제 비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려서라도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유지되고 직원들의 소득도 보전할 수도 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 틀을 과감히 탈피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LS산전, LS일렉트릭으로 새출발

33년 만에 사명 변경… 글로벌 重電 기업 도약 의지

대한민국 산업용 전력·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온 LS산전이 LS ELECTRIC(일렉트릭)으로 사명을 바꾸고 글로벌 초우량 중전(重電)기업으로 도약한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글로벌 사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사명까지 변경하며 대대적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LS산전은 24일 경기 안양 소재 LS타워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LSELECTRIC’을 신사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식상호는엘에스일렉트릭주식회사, 상표는 국문과 영문을 통합한 CI를 적용해 ‘LS ELCETRIC’을 사용할 예정이다.

LS산전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율적



인 전기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이미지를 넘어 스마트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새 정체성 정립 차원에서 LS ELECTRIC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S ELECTRIC은 1974년 럭키포장을 모태로 1987년 3월 금성산전으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산전’이란 이름을 33년간 사용해왔다.

1994년 LG산전을 거쳐 2003년 LG그룹에서 계열 분리 이후 2005년 LS산전으로 사명을 바꾼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번 사명 변경은 글로벌 사업 강화와 고객중심경영에 대한 회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아시아나항공, 허리띠 더 졸라맨다

고강도 3차 자구안 발표

아시아나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수요 급감으로 모든 직원이 다음 달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모든 직원이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했던 지난달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로, 휴직 대상도 조직장까지로 확대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임원들은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한다. 16일부터 운항이 중단된 A380(6대 보유) 운항승무원들은 고용유지 조치의 하나로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자구책을 발표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2월에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모든 임

전 직원 대상 무급휴직 확대

최소 10일 이상→15일 이상

임원급여 반납률 60%로 늘려

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했고,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사장 40%·임원 30%·조직장 20%) 조치를 했다. 이달에는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률을 이전보다 확대(사장 100%·임원 50%·조직장 30%)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여객 노선은 약 85% 축소(공급과적 기준)되고 다음 달 예약률도 전년 대비 90% 하락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최소 70% 이상 수준의 유류인력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전 직원 무급 휴직 확대 조치를 하게 됐다”며

“비상경영 체제가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여객기 공급 감소로 인해 늘어난 국제 화물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현재 화물기 14대(자사기 12대, 외부 임차 화물기 2대)를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여객 전세기 수요 확보 등 틈새시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86명을 인천-베트남 반돈 공항으로 수송하는 전세기를 운영했다. 이외에도 주기된 항공기의 기존 중정비 일정을 앞당겨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요 회복에 대비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화솔루션 ‘친환경 변신’ 주도하는 김동관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 탈바꿈
김 부사장 등 사내외 이사 선임

한화솔루션이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김동관(사진) 한화솔루션 부사장(전략 부문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사업에서 탈피해 전 세계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한화솔루션은 2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친환경 제품·솔루션 개발을 통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새로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김동관 부사장을 비롯해 사내외 이사



10명이 참석했다. 어맨다 부시 미국 세인트 어거스틴 캐피탈 파트너사파트너는 코로나19 여파로 입국하지 못해 전화로 회

의에 참여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이날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김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세무 전문가인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통상 전문가인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시마 사토시 전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실장과 어맨다 부시 파트너 등 4명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 이사회는 기존 9명(사내 4명·사외 5명)에서 11명(사내 5명·사외 6

명)으로 확대됐다.

한화솔루션은 미래 신성장동력을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열분해한 뒤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인 납사(나프타)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큐셀 부문은 미국·일본·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 시장에 지속적으로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모듈과 이차전지를 결합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 등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첨단소재 부문은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 각광받는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 올레드 TV ‘레드닷 어워드’ 최고상

에어컨 등 18개 제품도 본상 수상

LG전자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최고상(Best of the Best)을 포함해 총 19개 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TV 전체를 벽에 밀착시키는 ‘갤러리 디자인’을 적용한 2020년형 LG 올레드(OLED) TV(모델명 65GX·사진)는 제품 디자인 부문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 구동부, 스피커, 벽걸이 부품 등을 모두 내장해 외부 장치를 별도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 기존 벽걸

이형 TV와 달리 제품 전체를 벽에 밀착시켜 마치 TV와 벽이 하나가 된 듯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외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포함한 TV 3종 △LG 시그니처 에어컨 △LG 세탁기·건조기 △열음정수기냉장고 △스타일러 △울트라기어·울트라파인 에르고 모니터 △코드제로 청소기 △LG 사운드바 등 총 18개 제품도 차별화된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특히 LG 올레드 TV는 처음 출시된 2013년부터 8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최고상 수상만 통산 6차례에 달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국타이어 “500억 규모 자사주 매입·배당 확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배당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주가 가치를 높이겠다고 23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먼저, 한국타이어는 주주 가치와 주주권

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6개월 동안 약 500억 원의 한국타이어 주식을 매입한다. 배당 규모도 확대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2019년 결산으로 보통주 1주당 3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며 주당 300원이었

던 2018년에 비해 배당 폭을 확대했다. 한국타이어 역시주당 550원, 배당총액 681억 원으로 키웠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 전담 지원조직 체계를 마련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총회의결권 행사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3자 연합에 맡기면 파산” vs “한진측 주장은 가짜뉴스”

한진칼 주총 D-2 막판 여론전

조원태 회장 측 “30년 경험 전문경영인이 위기 이겨내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 연합 “조 회장 호황기에도 적자”
법원 “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 조원태 유리한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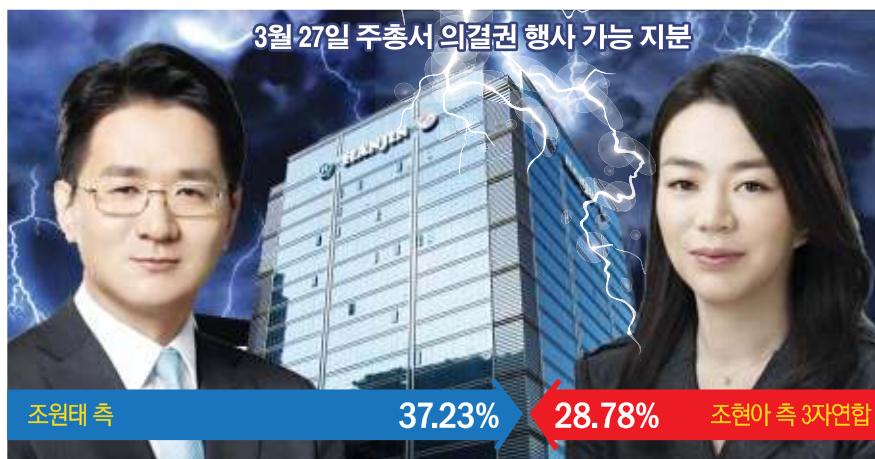
한진칼 주주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원태 그룹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 양측의 막판 여론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진그룹은 투기세력이 아닌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경영인’이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며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고 있으며, 3자 연합은 한진그룹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가짜뉴스 수준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진그룹은 24일 자료를 통해 “현 경영진은 항공·물류산업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경영인’들로 이번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들의 비열하고 저급한 인신공격성 주장, 거짓 주장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항공산업에 대해 ‘무지’한 ‘비전문경영인’들이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경영을 맡게 된다면, 6개월도 견디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연합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등 경영진은 물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인 허희영 항공대 교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인신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허 교수에 대한 거짓 선동과 비판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주주연합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의 한진칼 지분 의결권 여부 등에 대해 똑같은 주장을 수없이 반복하고, 기정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 ‘판결문’이라고 단언하던 것을, 한진그룹에서 주장했던 ‘합의서’, ‘문서’로 슬그머니 언론에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진그룹은 “‘땡콩회향’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의 풍랑 속으로 몰아넣은 조현아 전 부사장, 전형적인 투기 세력인 강성부 대표, 업종과 상관없는 투자로 ‘명예회장’까지 요구하는 권홍사 회장 등 3자 연합세력이 한진그룹을 뒤 흔들고 있다”면서 주주들의 현명한 선택을 독려했다.

이에 3자 연합 역시 “한진그룹이 우리를 비판한 내용은 가짜뉴스 수준의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3자 연합은 “한진그룹 논리는 낙제하고

서도 퇴학을 당하지 않았으니 성공이라는 것”이라며 “호황기에도 적자를 냈던 조원태 등 현 경영진에게 최악의 위기상황을 맡기는 것은 마치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의 핸들을 건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측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총을 앞두고 조원태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를 당사 한진칼을 상대로 “대한항공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삼성전자, 무선이어폰 칩도 ‘초격차’

업계 첫 통합 전력관리칩 출시
크기 줄이고 충전효율은 개선

삼성전자가 더 작고 더 오래가는 무선이어폰용 칩을 선보이며 반도체 초격차를 이어나간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무선이어폰(TWS: True Wireless Stereo) 설계에 최적화된 통합 전력관리칩(PMIC: Power Management IC)을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전력관리칩은 충전케이스에 탑재되는 ‘MUA01’과 이어폰용 ‘MUB01’이다. 각각 10개, 5개 내외의 다양한 칩들을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All in One)’ 칩으로 보다 넓은 배터리 공간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

기존 1세대 무선이어폰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MCU), 무선충전수신칩, 배터리 충전칩(Linear Charger), 배터리 잔량 측정칩(Fuel Gauge) 등 여러 개별 칩을 작은 공간에 촘촘히 배치해야 해 배터리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았다.

새 통합 전력관리칩을 사용하면 개별 칩을 사용했을 때보다 회로 기판의 크기를 절반 이상 줄이고 충전효율도 개선해 무선이어폰의 가장 큰 경쟁력인 작은 크기와 긴 사용시간을 구현할 수 있다. 무선이어



무선이어폰용 통합 전력관리칩.

폰 제조사는 더 적은 재료비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충전케이스에 탑재되는 MUA01은 유·무선 충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업계 유일의 제품이며 충전 전류와 효율을 높여 더 빠른 충전도 가능하다. 내부 데이터 저장공간(embedded Flash)을 구현해 소형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응용처에도 활용할 수 있다. ‘MUA01’과 ‘MUB01’은 삼성전자의 2세대 무선이어폰(TWS)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각각 탑재되었으며 향후 삼성전자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통해 무선이어폰 시장 확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호 시스템LSI사업부 마케팅팀 전무는 “새로운 통합 전력관리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고객사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비상경영’ 현대오일뱅크, 임원 급여 20% 반납

현대오일뱅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임원 급여 반납 등을 비롯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4일 강달호 사장을 포함해 전 임원의 급여 20% 반납과 경비예산 최대 70% 삭감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전면 축소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폭락과 코로나19 사태로 석유제품 수요가 줄어들며 정제마진이 악화되고 관련 손실까지 누적되며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 사장은 지난해부터 매주 비용 절감과 수익개

선 방안을 강구하는 비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4년 말 권오갑 회장을 시작으로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임원들이 순차적으로 급여를 반납한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도 이에 합류하며 현대중공업그룹 전 계열사가 임원 급여 반납을 하게 됐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 17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각사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피해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스마트 시민기업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이 커졌다 커졌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호~움
청신호

서울시 공공주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의 당당한 자립과
신혼부부의 꿈을 실현하도록
청신호로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청춘 주택사업!

스마트시티 서울
스마트라이프 청신호

청신호 ● ●
SMART
HOUSING



신혼집은
서울시家
신규 신혼부부 절반인
연 25,000호 지원

집 마련 걱정 없도록!
공급확대
• 주택공급 연 14,500호
• 신혼부부 매입주택, 재건축 매입,
역세권 청년주택

돈 걱정 없도록!
금융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연 10,500호
•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 이자지원 최대 연3.0%이내

아이 키울 걱정 없도록!
다자녀 지원
• 추가부담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 보증금, 월임대료 지원

찾아다닐 필요 없도록!
정보강화
• 신혼집 찾기 원스톱 '서울주거포털' 오픈
• 2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에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코로나19로 힘들어진 민생을 위한

"할인의 추억"

15% 할인에 5% 캐시백까지!!
-서울사랑상품권 20% 혜택-

이용가능 앱:



할인 구매기간: 2020. 3. 23.(월) ~ 7. 31.(금)

※ 할인 및 캐시백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사용 가맹점: 제로페이 가맹점 (대규모 점포, 사행성 업종은 사용 불가)

이용처: 각 자치구 (거주지역 관계없이 구매 가능, 발행 자치구 내 사용 가능)

가맹 및
사용 문의

☎ 02-120 / 1670-0582
www.zeropaypoint.or.kr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10만원을 8만5천원에 사는
놀라운 할인 혜택

"밥은 먹고 다니냐?"
걱정 말고 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OK

서울씨,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다.

신성이엔지 ‘이동식 스마트 음압병실’ 개발 완료

에어텐트형 제작, 기존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한 설치 가능
의료진이 안전하게 방호복 갈아입을 수 있는 전실도 배치
오염된 병실 공기 정화 후 외부로 배출 ‘클린룸’ 기술 적용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구축에 신성이엔지가 앞장선다. 신성이엔지가 스마트 음압병실<사진>의 구축을 위한 개발 및 준비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압병실은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환자를 외부 및 일반 환자와 분리해 수용하고 치료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높은 질병의 확산을 막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음압병실과 같은 격리 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음압병실은 설치비용과 유지비 그리고 평상시에도 20%가량을 대기병상으로 유지해야 하기에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신성이엔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기업들과 빠른 대응을 위하여 전막 구조 전문기업 스페이스업, 공기 전문 연구기업 에어랩과 함께 이동형 스마트 음압병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음압병실 보급에 나선다.

이동형 스마트 음압병실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와 같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기존의 음압병실은 1개의 구축 비용이 2억 원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신성이엔지의 스마트 음압병실은 에어텐트형으로 제작되어 경제적이며, 공기압을 이용해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다.

비, 바람, 눈과 같은 외력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해 공기막 구조물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했다. 필요시 지붕과 벽체를 이중



막으로 제작해 공기층에 의한 단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폐기가 용이한 재질로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외부 설치가 가능하기에 감염환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다.

스마트 음압병실에는 의료진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염된 방호복, 고글, 마스크 등을 탈의할 수 있는 전실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전실은 음압병실의

출입구 같은 곳으로 손소독을 하거나 방호복을 갈아입는 필수 공간이다. 이곳도 물론 압력이 낮기에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또한, 병실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UV살균과 HEPA필터를 통해 깨끗하게 정화한다.

스마트 음압병실은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기술을 적용한다. 실내의 압력을 낮춰 외부에서 병실로만 공기가

들어오고, 병실의 오염된 공기는 깨끗하게 정화되어 외부로 배출 된다. 이를 위해 신성이엔지는 음압과 양압이 모두 사용되는 클린룸의 기술을 적용했다.

클린룸은 깨끗한 실내에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압으로 설계되며, 일부 생산 시설에는 음압으로 공기를 제어한다.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의 클린룸을 양압과 음압으로 제어하는 신성이엔지의 기술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클린룸을 보급한 경험에서 나온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근 음압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마트 음압병실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며 “다양한 의료 환경에도 클린룸과 관련 설비들을 보급한 경험으로, 계획 초기부터 해외 시장 진출과 소형 음압기, 음압형 선별진료소 등도 염두에 두고 제품 개발을 했다. 스마트 음압병실의 보급으로 감염병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기자 che@

신임 중기연구원장에 이병헌 광운대 학장

中企 혁신 관련 풍부한 연구경험

이병헌<사진> 광운대 경영대학장이 제7대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24일 열린 2020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중기연구원은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학장을 제7대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까지로 3년이다.

이 신임 원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과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광운대 경영대학장,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 신임 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 관련, 경영에서부터 기술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연구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이 신임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필요성을 주창해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KT, AI·빅데이터 기술로 코로나 확산 막는다

서울대·KAIST 등 6개 기관과 ‘연구 얼라이언스’ 구축

KT가 정부와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 예측 공동 연구를 벌인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기관들과 ‘코로나19 확산 예측 연구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예측 연구 얼라이언스는 현재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내 코로나19 확산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 중인 6개 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KT는 서울대를 포함해 건국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6개 기관에 유동인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리 모델링 등을 활용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내 확산을 예측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얼라이언스를 주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예측 연구는 과기정통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철저한 보안 관리하에 이뤄질 예정이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민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 연구·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 조성된 공간이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코로나 확산 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사전 미팅이 있었다.<사진>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예측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향후 연구성과 공유 등 얼라이언스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KT는 2016년부터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자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과 통신데이터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는 GEPP를 개발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예측 연구 얼라이언스를 통해 또 한번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KT AI/BigData사업본부장 김재희 상무는 “코로나19 확산 예측 연구 얼라이언스의 연구 결과가 범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T는 국민기업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n번방’ 그놈들, 가상화폐로 잡는다

거래소 계정 흔적 남아… 업비트 등 “경찰에 적극 협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을 모집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에서 운영자뿐 아니라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지급한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될 가능성이 열렸다. 참여자들은 영상을 전송받기 위해 주로 거래자 신원을 숨기는 익명성 코인이나 가상화폐로 지급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흔적이 남았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텔레그램 n번방 유료 회원 추적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주요 내용은 n번방 참여자들이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주소가 해당 거래소에서 발급한 주소인지와 계정 신원 확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집 주소로 직접 입금이 이뤄진 계정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중대 범죄와 관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법정 행위와 연관된 사안이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

나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 수사를 돕겠다”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일제히 수사 협조에 나서면서 익명으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수집했던 참여자들의 신원 파악이 예상된다.

신원을 숨기려 사용했던 가상화폐 거래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참여자들이 지불한 가상화폐 전송 기록을 역추적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과 비교해 찾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을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124명을 검거했다. 이 중 ‘박사방’ 운영자 조씨를 포함한 18명을 구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참여자 전원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원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상화폐로 영상 수집 대가를 지불한 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람 기자 hura@

삼성SDS ‘이탈리아 국방 모바일 보안’ 수주

美NIAP CC인증 세계 첫 획득

삼성SDS가 올해 1월 이탈리아 국방 모바일 보안 사업을 수주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SDS는 2015년부터 미국 국방부와 육·해·공군·해병대, 영국 국방 기관, 싱가포르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은 삼성SDS는 자사 모바일 통합보안 솔루션 EMM의 다양한 보안 기능으로 이탈리아 정부 기관에 모바일 업무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 솔루션은 △사용자 등급별 보안 정책에 따른 단말기 관리 및 원격 제어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 접속 차단 △비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지 등 국방 및 공공 기관에서 필요한 모바일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삼성SDS EMM 솔루션은 2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국가정보보증협

회(NIAP)로부터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에 대한 최신 정보보안 평가(CC)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다.

CC 인증은 공공 기관의 정보보안 제품 도입을 위한 필수 인증제도다. 삼성SDS는 서버 간 암호화 통신 구간 확대, 보안 알고리즘 고도화 등 보안 수준을 강화해 새롭게 제정된 CC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이밖에도 삼성SDS는 보안성이 뛰어난 자사의 브라이틱스(Brightics)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에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싱가포르 공공 기관의 실내 위치 추적 솔루션(Indoor Tracking) 사업을 최근 추가 수주했다.

실내 위치 추적 솔루션은 삼성SDS의 최신 IoT 기술을 적용해 방문객의 건물 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안구역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김우람 기자 hura@

‘2020년 상위 퍼블리셔 어워드’ 넷마블 6위…국내기업 중 최고

넷마블이 전 세계 퍼블리셔 중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모바일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업체인 ‘2020년 상위 퍼블리셔 어워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낸 52개 모바일 앱 퍼블리셔를 24일 공개했다.

전 세계 상위 52개사 중 국내 기업은 넷마블이 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엔씨소프트가 20위, 게임빌 39위, 카카오가 48위 등 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넷마블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2조1755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1분기 ‘A3: 스틸얼라이브’를 출시해 초반 흥행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가장 높은 수익을 낸 퍼블리셔 1위는 4년 연속 중국의 텐센트가 차지했다. 2위는 중국의 넷이즈, 3위는 미국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다.

조성준 기자 tiatio@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확 커진 구독경제 시장

GS샵 달달마켓 오늘부터
풀무원샘물 정기구독 방송

언택트 소비 추세 맞물리며
2월 베이비본죽 매출 두 배
더반찬 월평균 20% 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클릭 한 번이면 구독한 물품을 배달 집으로 배송해주는 '정기 구독 서비스'의 성장세도 빨라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언택트(비대면) 소비 문화가 자리 잡으며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정기 배송받는 소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 구독 서비스는 필요한 물건이 떨어질 때마다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 결제하면 주기적으로 물건을 배송해줘 편의성이 뛰어나고, 한꺼번에 많이 결제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GS샵은 온라인 구매가 부쩍 늘어난 생필품 가운데 생수를 정기 구독 서비스로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GS샵은 25일부터 '달달마켓×풀무원샘물'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달달마켓×풀무원샘물'은 생수 총 100병을 3주마다 한 번씩 3회에 걸쳐 배송한다. 1회 차에는 가지고 나가기 좋은 500ml 생수 40병과 집에 두고 먹기 좋은 2l 생수 12병을, 2~3회 차에는 2l 생수를 24병씩 배송한다. 가격은 4만9900원이다.

'달달마켓'은 GS샵이 '달마다 달라지는 마켓'이라는 컨셉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선보인 정기배송 서비스다. 한 번 구매하면 세 번에 걸쳐 제철 과일을 배송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담근 포장김치, 닭 볶은 견과류 등을 정기 배송하기도 했다.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는 업체도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18일 전용 온라인



동원푸드 온라인 반찬 마켓 '더반찬'

몰인 '그리탕몰'을 오픈했다. 그리탕몰은 소비자들이 건강식단을 정기구독할 수 있는 '케어식단'과 간편건강식·반찬·건강주스·소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강마켓' 등 두 가지 코너로 구성됐다.

이중 '케어식단'이 정기 구독 서비스 형태로 운영된다. 고객이 저장식단·라이트식단·웰니스식단 등 세 가지 건강식단 중 원하는 식단을 선택하면 택배를 통해 고객 집으로 정기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식단을 선택하면 메뉴와 배송일, 배송 방법(일반택배·새벽배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하루에 몇 끼를 먹을지, 몇 주간 이용할지 등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정기 배송 수요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이유식'이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로 이유식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구입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증가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본아이에프의 자회사로 맞춤형 유동식 생산 전문 기업인 순수본은 프리미엄 영유아식 브랜드 '베이비본죽'을 판매하고 있다. 베이비본죽은 이유식 제품을 준비기(4~5개월), 초기(5~6개월), 중기(7~8개

월), 후기(9~11개월), 완료기(12개월) 등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4일분, 7일분 등 1주 배송 수량과 횟수, 배송 요일을 선택해 정기적으로 식단을 받아볼 수 있다.

순수본에 따르면 베이비본죽의 2월 이유식 식단 배송 매출액은 직전 월 대비 10.4%, 전년 동기 대비 97.3% 증가했다. 또한 올해 1, 2월 베이비본죽 이유식물의 실구매자 수는 전년 대비 77.8% 증가했는데, 회사 측은 정기 배송 수요 증가가 실구매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도 자사 온라인몰인 '칠성몰'을 통해 올해 1~3월까지 정기 배송 품목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정기 배송 품목 중에서는 생수인 '아이스'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정기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온라인 반찬 마켓인 '더반찬'도 수요가 늘고 있다.

동원푸드가 운영하는 더반찬 정기배송 서비스는 매번 번거롭게 제품을 주문할 필요 없이 매일 각기 다르게 구성된 식단 목록을 보고, 원하는 날짜의 상품을 일괄 선택해 주문하는 서비스다.

주문은 한 번에 최대 4주 분량까지 가능하며 배송 당일 새벽마다 받아볼 수 있다. 1~2인 소규모 가족을 위한 싱글세트, 3인 이상의 패밀리세트 등으로 구성돼 구성원 수에 따라 주문할 수 있다. 동원푸드 관계자는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해 아직까지 매출액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최근 6개월간 매출액은 월평균 20%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00년 약 2150억 달러(약 252조 원)에서 2015년 4200억 달러(약 492조 원)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5300억 달러(약 6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선 기자 only@

안경무 기자 noglasses@

“아이스크림 시키신 분~”

디저트도 배달로 즐기는 시대

더벤티, 요기요 업무협약

배스킨라빈스 배달 CF 공개

공차, 배민·요기요와 제휴

커피·디저트도 배달로 즐기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 커피는 물론 아이스크림, 빙수까지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디저트 전문점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내점고객이 줄면서 가맹점 매출이 감소한 프랜차이즈들은 배달 확대로 상생 경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대용량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는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배달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더벤티는 커피 및 음료, 디저트 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배달 서비스에 대한 각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더벤티와 요기요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는 요기요 앱을 통해 더벤티의 커피와 음료, 디저트, 베이커리 등 전 메뉴를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된다. 더벤티는 최대 300개 이상까지 배달 가능 매장을 순차적으로 확대나간다는 계획이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도 배달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배스킨라빈스는 최근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라를 배달로!'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광고는 '일상 속 아이스크림이 필요한 순간'을 주제로 △일요일 △불닭 △떡방 등 총 10편을 제작했으며, 라디오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순차 공개한다.

배스킨라빈스는 광고를 통해 휴일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을 때,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지친 업무 중에, 친구들



과 파티할 때 등 아이스크림이 필요한 순간을 경험한 음악과 함께 그려냈다.

글로벌 티(Tea) 음료 브랜드 공차코리아도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손잡고 전국 300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오리지널티, 밀크티, 베스트 콤비네이션을 비롯한 주요 메뉴를 배달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배달 서비스를 도입해 높은 매출 상승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은 지난달 배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비 배달 주문 건수도 94% 늘었다. 배달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2018년 4월과 비교하면 470%의 성장을 보인 셈이다. 매장별 평균 매출액도 300% 상승했다. 설빙은 코로나19로 지난달 특히 높은 배달 매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는 매장이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내점 대신 배달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자체 배달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도 배달대행 등을 통해 관련 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가 배달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한 봉에 400원”... 홈플러스 ‘국민비빔면’ 출시

삼양식품 협업 국민라면 4탄

홈플러스는 삼양식품과 함께 선보인 네 번째 국민 라면 시리즈 ‘국민비빔면’이 가정비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첫선을 보인 국민비빔면(5개입/봉/2000원)은 얇고 찰진 면발과 입맛 돋우는 새콤달콤한 소스가 특징이다. 비빔 소스는 태양초 고추장에 식초와 사과·배 농축액을 넣어 더욱 감칠맛 나는 양념을 완성했고, 파프리카 추출물을 활용한 붉은색 면으로 식감과 시각적인 효과까지 더했다. 뛰어난 품질에도 가격은 경쟁 상품의 절반 수준인 개당 400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

오직 홈플러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국민라면 시리즈’는 홈플러스와 삼양식품의 협업으로 탄생한 상품으로, 삼양식품의 50년 라면 제조 노하우와 홈플러스의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해 품질을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포장과 마케팅, 유통 과정 간소화를 통해 가격을 대폭 낮췄다.

국민라면과 국민짜장, 국민컵라면까지 앞서 선보인 ‘국민 라면 시리즈’ 모두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입소문 나며 경쟁이 치열한 라면 시장에서 홈플러스 내 매출 상위 10위 내에 자리하고 있다.



24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국민비빔면’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국민비빔면도 출시 3주 만에 약 10만 봉지가 판매되며 단숨에 매출 상위권에 오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 상품의 강세가 뚜렷한 라면 시장에서 신상품이 거듭해 성공을 거두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거품을 건어낸 가격과 기대를 뛰어넘는 맛을 통해 가심비까지 갖춘 전략이 통했다고 할 수 있다.

유서현 홈플러스 가공식품팀 바이어는 “국민라면 시리즈가 라면 시장에서 유의미

한 성과를 보이는 만큼 ‘국민비빔면’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콕’ 장기화에 전 국민이 좋아하는 간편식인 라면의 수요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3월 따뜻한 날씨에 비빔면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비빔면 판매 비중은 전체 라면의 11% 수준으로 2주 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올리브영 ‘발자국 스티커’ 거리두기 실천

고객 간 건강거리 확보 나서

CJ올리브영이 ‘발자국 스티커’ 부착으로 고객 간 거리 두기에 나선다.

CJ올리브영은 24일부터 명동과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한 전국 30개 주요 매장에 고객 간 건강거리 확보를 위한 ‘발자국 스티커’를 부착한다. 결제를 대기하는 고객 사이 일정 간격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발자국 스티커’는 결제 대기 줄의 밀집도가 높은 상권 대표 매장 30곳에 우선 도입한다. 직원에게는 결제 시 ‘라텍스 장갑’ 착용을 권장해 접촉에 대한 고객 염려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19일에는 매장 내 안전 수칙도 강화했다.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제한’ 안내문을 전국 매장 출입문에 부착하는 등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대규모 매장을 중심으로



CJ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고객들이 결제를 위해 ‘발자국 스티커’에 맞춰 줄을 서 있다. 사진제공 CJ올리브영

고객 간 건강거리 확보를 위한 ‘발자국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며 “고객과 직원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안전한 매장’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소비 트렌드’ 선도… 불황 속 빛난 혁신경영

소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소비자의 변화를 감지하고 제품에 반영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변화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안주하는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잭 웰치 전 G.E 회장은 “21세기는 변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도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순응해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을 리딩하는 기업은 시대를 앞서나가 기보다 시대의 트렌드와 동행한다. 소비자의 트렌드를 읽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행보야말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가장 빠른 창구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이투데이 소비자유통대상에서는 소비자와 제품으로, 또 서비스로 다양하게 소통하는 기업들에 주목했다. CJ제일제당은 HMR(가정간편식) 시장을 선도하며 세계의 식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애경산업은 생활용품부터 화장품까지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가맹점과 꾸준히 소통하는 파리크라상, 청정 이미지로 맥주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하이트진로 등이 선정됐다.

편집자주

제10회 이투데이 소비자유통대상

	회사명	업태	응모부문
종합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CJ제일제당	식품	유통혁신
한국유통학회장상	이베이코리아 현대백화점	온라인쇼핑몰/서비스 백화점	온라인혁신 고객서비스
한국소비자학회장상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CSV
	동서식품	음료(커피)	소비자만족
	농심	식품	소비자만족
	하이트진로	주류(맥주)	소비자만족
	오비맥주	주류(맥주)	소비자만족
	애경산업	화장품	고객서비스
	CJ대한통운	물류	CSV
	오뚜기	식품	CSV
	파리크라상	프랜차이즈/식품	상생협력
	롯데지알에스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대상	식품	제품혁신
	롯데칠성	주류(맥주)	제품혁신

“유통 선진화 공헌… 초우량 기업 성장 기대”

심사평 박진용 한국유통학회장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사)한국유통학회, (사)한국소비자협회가 후원하는 ‘2020년 대한민국 소비자유통대상’은 올해가 열 번째 행사이다. 수상 기업들은 거시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시적으로는 소비자 만족과 유통산업 선진화에 공헌한 유통기업들이다.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소비자협회의 두 회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이번 2020년 대한민국 소비자유통 대상에 응모한 기업들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및 공정한 기업활동 등을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5개 부문에서 1개의 종합대상 기업과 15개의 수상 기업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제조는 물론 유통경로 관리에서 뛰어난 기업 중에서 CJ제일제당을 종합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유통학회장상에는 현대백화점과 이베이코리아 두 업체를 선정하였다.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롤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도적 업체로 평가되었다. 이베이코리아는 온라인



유통혁신을 통해 성과를 나타내어 선정되었다.

한국소비자학회장상에는 아모레퍼시픽과 동서식품이 수상하였다. 고객서비스 부문에 애경산업, 소비자만족 부문에서는 농심·오비맥주·하

이트진로 등 세 개 업체가 공동 수상하였다.

제품혁신 부문에서는 롯데칠성음료와 대상㈜, 사회적 공헌활동 부문에서는 나눔 봉사활동 전개한 CJ대한통운과 오뚜기가 수상하였다.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현재, 본상을 계기로 수상한 기업들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창의적인 혁신 노력을 통해 초우량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내 많은 기업들이 수상 기업을 벤치마킹하여 훌륭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국내 유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다면 본상의 의의는 매우 클 것이다.

종합대상 CJ제일제당

비비고 죽, 연매출 1000억 ‘메가브랜드’ 눈앞

CJ제일제당은 독보적인 혁신기술 개발과 3대 핵심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HMR 매출을 3조6000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이 중 40%를 글로벌 시장에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미래 성장동력인 HMR 사업을 키우기 위해 지난 5년간 1000억 원대의 비용을 투자해 브랜드와 R&D, 제조기술을 차별화하는 데 매진했다.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의 전환으로 햇반(겉반), 비비고, 고메 등 온라인(ONLYONE) 브랜드를 탄생시켜 국내 식문화의 지평을 넓혔고, 미래 식품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그 결과, CJ제일제당은 ‘햇반’과 ‘비비고’, ‘고메’ 등 핵심 HMR 브랜드를 앞세워 2016년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 출시된 비비고 죽은 시장 판도 자체를 바꾸는 대표 HMR 제품으로 업계와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비비고 죽이 상온 파우치죽을 앞세워 삼품죽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비고 죽은 1월 말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3000만 개를 돌파했다. 출시 후 14개월간 누적 매출



은 800억 원(소비가 기준)을 넘어섰고, 작년 한 해 매출만 670억 원을 기록하며 출시 1년 만에 준(準)메가 브랜드 대열에 올랐다. 최근 성장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1000억 원대 메가 브랜드 등극도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전문점 메뉴 중심의 파우치죽 라인업 확대를 통해 비비고 죽이 개척한 상온 파우치죽 시장을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죽 일상식’이라는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 리더로서, 식사 대용식, 간식, 야식 등 죽을 일상에서 다양하게 즐기는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유통학회장상_온라인혁신 이베이코리아

결제·물류·멤버십 등 온라인 쇼핑 선진화

이베이코리아는 차별화한 오픈마켓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온라인 유통 1위 기업으로, 독보적 국내 1위 사이트인 G마켓을 비롯해 회원 수 2000만 명 이상의 옥션 및 쿠팡이전 커머스 사이트 G9 등 3개의 강력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G마켓과 옥션, G9의 각 브랜드 파워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선도하며, 간편결제 시스템 ‘스마일페이’, 무인 택배함 ‘스마일박스’, 익일/합배송 ‘스마일배송’, 프리미엄 멤버십 ‘스마일클럽’ 등을 통해 결제와 물류, 멤버십 서비스에 이르는 쇼핑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2017년 국내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유료 멤버십 ‘스마일클럽’은 회원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쇼핑에 특화된 간편결제 ‘스마일페이’는 2019년 10월 기준 가입자 수 1450만 명을 넘어섰다.

‘스마일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제휴처를 확장하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업계 최초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스마일카드’를 출시했으며, 출시 1년 6개월을 맞은 2019년 12월 기준 가입자수 66



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스마일배송’은 이베이코리아가 국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선보이고 있는 ‘풀필먼트 플랫폼’ 서비스다. 기존의 풀필먼트 사업이 제조사의 재고를 직매입해 구매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스마일배송’은 판매 고객들의 물류 애로사항을 돕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올해 초 풀가동에 들어간 동탄 물류센터를 통해 ‘스마일배송’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장상_고객서비스 현대백화점

‘내 일처럼, 가족처럼’ 고객제일주의 실천

현대백화점은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울러 ‘고객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가치와 미래 창조’라는 기업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고객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고객과 직원을 ‘가족처럼’ 모시겠다는 의미에서 ‘내 일처럼, 가족처럼’이라는 서비스 아이덴티티(Ser-vice Identity)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 의견을 최우선으로 청취하고 불만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 유일의 공개형 ‘고객의 의견(VOC)’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가 만드는 서비스’라는 공개형 게시판을 통해 고객이 제안하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한 ‘서비스VOC위원회’ 제도를 신설해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화점을 구현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대백화점은 백화점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프리미엄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이라는 VR(가상현실) 스토어를 업계 최초로 개설하고, 채팅형 챗봇인 ‘헤이봇’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고객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 있다.

또한 안내방송의 품질 관리와 함께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에게도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한 TTS(Text-to-Speech)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한국소비자학회장상_CSV 아모레퍼시픽

여성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사회공헌 정착

국내 화장품과 녹차 산업을 이끌어온 아모레퍼시픽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창업자와 최고경영자가 사회공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모범을 보이며 구성원들 또한 자율적으로 이를 실천해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은 자연스럽게 기업문화로 정착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소명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A MORE Beautiful World'라는 비전 아래 모든 여성이 저마다 꿈꾸는 삶을 누리며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중 하나로 '핑크리본 캠페인'이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연해 국내 최초 유방 건강 비영리 공익 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2001년부터 유방 건강 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핑크리본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은 '핑크리본'이다.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한 핑크리본은 유방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검진을 통한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매년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리는 러닝 축제다. 유방건강강좌 '핑크투어'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유방 자가검진법 체험 프로그램이다.

2008년 시작돼 올해 13주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심적 고통을 겪는 암 환자들에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암 환자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비자만족 농심

짜파게티, 짜파구리로 세계무대에 '라면한류'

그간 수많은 레시피를 창출한 짜파게티는 모디슈머(Modify와 Consumer의 합성어) 열풍의 원조로 꼽힌다.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부터 만두소, 파김치, 치즈까지 워낙 다양한 레시피가 있어 '국민 모두가 나만의 조리법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1984년 3월 출시된 '짜파게티'는 36년간 소비자와 호흡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짜장면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독자적인 맛의 영역을 만들어낸 짜파게티는 올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며 국내 라면 시장 '넘버2'의 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제2의 신라면'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짜파게티는 '기생충의 짜파구리' 열기에 힘입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짜파게티의 명성은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 소비자들이 짜파구리를 만들고 SNS에 인증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업계에서는 "짜파게티가 짜파구리 바람을 타고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고 평가했다. 농심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짜파구리 조리법을 11개 언어로 소개해 해외 소비자들의 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짜파게티 특유의 맛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국물라면의 매운맛과 달리 짜파게티의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짜장소스 맛은 외국인이 먹어도 큰 거부감이 없어 해외시장 진입 장벽이 일반 라면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처럼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갖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짜파구리를 계기로 짜파게티가 신라면의 뒤를 잇는 K푸드 대표주자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만족 오비맥주

생맥주처럼... 갓 뽑아낸 신선함으로 승부

오비맥주는 수입맥주의 공세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 맥주시장에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카스'만의 차별성과 독보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 1월 카스가 출시된(1994년) 이후 처음으로 병 자체를 교체하고 캔에도 혁신 기술을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비맥주는 수입맥주 인기가 이어지는 현상을 새로운 맛과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 수요로 보고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비맥주의 경우 작년 발포주 필굿을 비롯해, 1952년 탄생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 맥주 브랜드 'OB'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OB라거'를 출시했다. 다양한 제품군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점점 고급화, 다양화되는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과 기호를 충족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장수브랜드인 카스도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카스 별자리 에디션'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카스 별자리 에디션'은 355ml 카스 캔 제품에 시그니처 색인 푸른색을 배경으로 초록, 파랑, 분



홍, 오렌지 등 4종의 야광 색상을 활용해 12개 별자리 이미지를 선보인다.

맥주는 고도주와 달리 '신선도'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만큼 카스는 빠른 제품 회전 속도를 앞세워 항상 갓 뽑아낸 생맥주나 다름없는 신선한 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카스 캔맥주는 생산한 지 한 달 미만, 병맥주는 2~3주 전의 것들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등 갓 생산된 맥주가 항상 유통되다 보니 신선도가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유의 상쾌함과 신선한 맛 덕분에 카스는 브랜드 점유율과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맥주로 자리잡았다.

한국소비자학회장상_소비자만족 동서식품

믹스에서 인스턴트 원두까지 '커피 대중화'

동서식품은 1968년 설립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내 커피시장을 이끌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커피 회사다. 커피와 크림, 설탕이 배합된 커피믹스를 197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일부 상류층만의 전유물이었던 커피를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음료로 대중화시켰다.

현재 동서식품은 커피믹스부터 인스턴트 원두커피까지 끊임없는 제품 혁신을 통해 인스턴트 원두커피 시장에서 80%, 커피믹스 시장에서 86%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커피 크림, 녹차, 곡물차, 시리얼, 벌꿀, 비스킷 등 커피류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국내 식품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동서식품만의 커피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1976년 12월 세계 최초의 커피믹스를 생산했다. 커피와 크림, 설탕을 각각 따로 넣어 먹던 기존 커피에서 한 차원 나아가 세 가지 재료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해 고급 밥숟가락에 담은 일화용 커피믹스로 탄생시켰다.

커피믹스는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고 따뜻한 물과 종이컵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마실 수 있



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노란색 커피믹스 '맥심 모카골드'는 동서식품의 메가히트 제품이다. 1989년 탄생한 맥심 모카골드는 출시 이후 30년간 '국민 커피'로 불리며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켜왔다. 최상급 원두를 엄선하고 커피, 설탕, 프리마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언제, 어디서나 누가 타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분석이다.

동서식품은 맥심 모카골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2011년 국내 최초 인스턴트 원두커피 브랜드인 '맥심 카누'를 출시했다. 카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어서 출시 이후 줄곧 국내 인스턴트 원두커피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소비자만족 하이트진로

테라, 4억5600만 병 판매 '짜릿한 돌풍'

하이트진로는 국내 최초의 소주회사와 맥주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기업이다. 192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소주회사인 진로와 1933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맥주회사 하이트의 만남으로 국내 대표 주류 기업인 하이트진로가 2011년 출범한 것.

국내 대표 주류회사답게 전 세계 88개국에 수출하는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출시한 신제품 '테라'가 선전하며 국내 맥주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테라는 출시 279일 만에 누적판매 약 1503만 상자, 약 4억5600만 병(330ml 기준)의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성인(4231만 명 기준) 1인당 10병가량 마신 셈이다. 초당 19.2병이 판매되며 병을 누이면 지구를 2바퀴(4만2411.5km) 이상 돌 수 있다. 초기 165일 만에 2억 병을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판매 속도가 3배가량 빨라졌다.

테라 판매 상승으로 맥주 공장 가동률도 상승했다. 강원공장과 전주공장의 지난해 3분기 가동률은 각각 68.9%와 45.7%로 1분기 42.3%와 26.1% 대비 급등했다.

테라의 인기 비결은 품질력과 차별화된 패키지에



있다. 테라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색다른 제품이되, 메인 시장인 '라거' 시장에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획됐다. 세계 공기질 부문 1위 지역에서 수매한 맥아만을 100% 사용하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리얼 탄산만을 100% 담아 차별화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의 초기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영업력을 집중하고 소비자 접점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다양하게 펼쳤다.유흥 시장에서 먼저 흥행한 후 가정 시장으로 확산되는 주류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전략적인 상권 공략을 진행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유흥의 진원지와 같은 여의도, 강남, 홍대 등 대학 상권을 집중 공략하며 흥행의 기반을 닦았다.

고객서비스 애경산업

혁신적인 제품·디자인으로 생활뷰티 선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디자인 경영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디자인 경영을 도입했고 20여 년간 꾸준한 혁신을 통해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애경산업은 디자인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5월 서울 홍대 근처에 '디자인센터'를 별도로 설립했고 이곳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진 생활용품과 화장품 등이 탄생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기업명이자 기업 이념인 '사랑(愛)과 존경(敬)'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고객과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뷰티 기업이다. 애경산업은 탄탄한 생활용품 사업을 기반으로 최근 고성장 중인 화장품 사업을 통해 생활뷰티 선도기업으로서 면모를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비누인 '미향비누'를 시작으로 최장수 주방세제 '트리오', 국민지약 브랜드 '2080', 중성세제의 대명사 '울삼푸', 세탁세제 '스파크', '리큐' 등 생활용품을 선보인 애경산업은 'AGE 20's(에이지투웨니스)', '루나(LUNA)', '포인트(POINT)' 등 화장품들을 통해 고객의 삶 가까이에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해왔다.

애경산업은 연구소·생산설비·디자인센터 등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브랜드와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애경 종합기술원은 우수한 연구인력 및 최첨단 연구기기를 확보하고, 활발한 연구를 통해 생활용품 전문연구기관에서 21세기 초일류 글로벌 화학연구소로의 꿈을

CSV CJ대한통운

실버택배 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이끌어

CJ대한통운은 1930년 창립한 조선미곡창고와 조선운송을 뿌리로 하는 한국 물류산업의 효시이자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이다. 물류 분야 1위 기업으로서 90여 년 세월 동안 물류 외길을 걸어온 CJ대한통운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시기 우리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충실했다.

1970년대 시작된 국가 산업발전과 맥을 같이해온 CJ대한통운은 계약물류, 택배, 항만하역&운송, 포워딩&국제특송, 프로젝트물류 등 물류 전 영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활물류인 택배 부문에서도 약 48%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동참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인류사회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17개 목표의 달성과 신규 활동 발굴에 힘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발달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회사는 국가기관, 지방·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 형태의 사업모델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CJ대한통운은 실버택배 모델을 통해



14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빈곤 문제 해소와 고령자의 사회 참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과 '민경협력 공동체 치안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안심 택배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회사 측은 "배송지역 내 치안 취약지역 범죄를 예방하고 실종자 찾기 지원 등으로 치안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나눔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나눔 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새로운 봉사 모델 발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력 파리크라상

가맹점 맞춤형 컨설팅으로 매출·서비스 향상

1945년 상미당이라는 빵집에서 시작된 파리바게뜨는 1986년 첫 매장을 개점한 이후 1988년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점포 수 3420호점(2018년 기준)을 보유한 국내 대표 베이커리 회사로 성장했다.

"빵을 수백만 개 만들어도 고객은 빵 하나로 평가한다. 빵을 나누면 기분이 되지만, 만드는 기술을 나누면 굶이 된다"는 CEO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나눔을 강조해온 파리바게뜨는 가맹점, 고객과 상생하는 브랜드로 거듭났다.

한국 전통누룩에서 제빵 적성에 가장 적합한 토종 효모(SPC-SNU)를 서울대 연구진과 산학 공동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발굴해 제빵업계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켰으며, 토종 효모 유산균 발효종인 상미종을 적용한 시그니처 브레드를 선보이며 고객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라인인 시그니처아다지오(커피), 시그니처생크림케이크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직접 가맹점주 대표와 만나는 간담회를 연 2회 진행하면서 가맹점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경영에 접목하는 데 앞장서왔다.



가맹점주가 POS시스템을 통해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건의하면 담당자가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등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출이 부진하거나 경영상 애로를 겪는 가맹점을 위한 SRP(Sales Revitalization Program)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맹점 개별의 특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의 매출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제품혁신 대상

국내 포장김치 1호... 32년째 '100% 국내산'

대상은 조미료 사업으로 출발해 종합식품사업, 바이오 사업, 전분당 사업 등 국내외 식품문화를 선도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식품사업은 1996년 도입한 종합식품 패밀리 브랜드인 '청정원'과 '종가집'을 중심으로 '순창고추장', '카레야랑', '안주야', '집으로ON', '홍초', '우리팜', '맛선생', '종가집 김치', '종가집반상' 등 차별화한 전략적 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포장김치 1호 국민김치 '종가집'은 1988년 출시 후 32년 김치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치를 집에서 담가 먹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 김치 세 계화를 꿈꾸며 등장한 제품이 바로 국내 최초의 포장 김치 브랜드 '종가집'이다.

정부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김치를 알리기 위해 상품화를 추진했다. 언제 어디서 먹어도 다르지 않은 표준화된 맛을 위해 인간문화재 38호이자 조선 궁중 음식 전수자인 고 황혜성 고문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조리법을 만들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손맛을 표준화한다는 의미에서 브랜드를 '종가집'으로 정했고 브랜드 로고에 기와지붕을 넣은 종가집 브랜드가



탄생했다.

출시 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은 '100% 국내산 재료'로 김치를 담근다는 원칙이다. 특히 100% 국내산 재료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등급만을 가려 사용한다. 또 종가집 김치는 이물선별, 엑스레이, 각 공정별 위생제어 시스템 등 최고 수준의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체계적 품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CSV 오뚜기

장애인들에 '임가공 위탁' 자립 기반 제공

1969년 창립한 오뚜기는 카레, 스프, 케첩, 마요네스, 레토르트, 순식물성 마아가린 등 국내 최초의 제품들을 선보이며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오뚜기는 '품질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오뚜기는 또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끝에 최근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여 년 동안 심장병 어린이 후원 사업을 통해 5185명(2019년 12월 기준)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등 다양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오뚜기 관계자는 "보여주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과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장애인에게 일감을 주어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한 차원 높은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오뚜기는 2012년 6월 18일부터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밀알재단의 '굿윌스토어(Goodwill Store)'와 △오뚜기 선물세트 조립 작업 임가공 위탁 △굿윌스토어 매장 오뚜기 제품 기증 △오뚜기 물품나눔캠페인 진행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등 4가지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에게 생활용품이나 의류 등의 물품을 기증받은 후 장애인들이 잘 손질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이다. 선물세트 임가공은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오뚜기 임직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굿윌스토어 송파점과 도봉점에서 자원봉사활동(월 25명 참여)을 실시하고 있다.

상생협력 롯데지알에스

'필수 구매 품목 축소' 가맹점주 부담 낮춰

롯데지알에스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1979년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서 약 1350개의 롯데리아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T.G.I.Fridays, 빌라드샐롯 등 외식 브랜드를 확장 중이다.

롯데지알에스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함께 2016년 8월 강동경희대병원, SRT수서역사, 부산해운대백병원에 이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 국내선 4층 등 식음료 사업권 운영권을 획득한 컨세션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상생경영'을 이어가며 국내 대표 외식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2017년에는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동반성장위원회와 3자간 '햄버거 빵 동반성장 상생 협약'을 맺고 제빵조합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햄버거 빵'을 납품받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햄버거 빵 구매 및 지속적 품질지도, 원부재료 공동구매, 물류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판매 경로 확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가맹점을 위한 상생경영도 이어가고 있다. 같은 해 롯데지알에스는 우리은행, 동반성장위원회, 롯데리아 가맹점협의회와 함께 가맹점주를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정책을 도입했고, 2018년 3월에는 가맹점과의 상생위원회를 열어 가맹점에 공급되는 원부자재 품목 공급가격을 내리고, 필수 구매 품목의 비율을 축소해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주력했다.

제품혁신 롯데칠성

부드러운 목넘김 '순한 소주' 트렌드 선도

롯데칠성은 1926년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 주류 회사다. 첫 사명은 강릉합동주조로 소주를 비롯해, 맥주, 과실주, 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는 소주인 '처음처럼', 프리미엄 몰트 100%와 고급홥을 원료로 만든 맥주 '클라우드', 깔끔한 맛의 맥주 '피츠 수퍼리어', 청주 이미지를 대중화한 '설화' 등이다.

또한, 매실주 시장의 선두주자 '설종매', 한국 와인의 자존심 '마주앙' 등 오랫동안 고객의 사랑을 받아 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2006년 탄생한 '처음처럼'은 당시 세계 최초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한 소주로, '부드러운 맛, 적은 숙취, 웰빙 트렌드 반영'이라는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6개월 만에 1억 병이 판매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후 2008년 롯데주류가 주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처음처럼'을 생산하던 두산주류BG를 인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클라우드'는 독일, 영국, 북유럽 등의 정통 프리미엄 맥주가 채택하고 있는 오리지널 그라비티



(Original Gravity) 공법을 적용해 맥주 발효 원액에 추가로 물을 타지 않고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처럼'은 국가고객만족도(NCSI) 소주부문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고, '클라우드' 역시 NCSI 맥주 부문 4년 연속 1위에 올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인재를 중시하는 기업,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혁신 기업으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희
망
이

피
어
나
도
록

Hope.Together.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의
희망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한이 여러분과 함께 소셜 기부 프로젝트
Hope.Together. 캠페인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넘어
더 건강해질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신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셜 기부 프로젝트 Hope.Together. 캠페인 참여 방법은 신한금융희망재단 홈페이지 또는 와디즈에서 확인 가능하며,
조성된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등 의료진, 소외계층 아동,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SI

미래를 함께 위한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버틸 만큼 버텼다”… 개미, 폭등한 날 ‘팔자’ 돌아서

연기금 24일 대규모 매수 영향
코스피 전일 대비 8.6% 경증
개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4612억 쏟아내며 차익 실현

외국인 매도 공세에 맞서 연일 주식을 사들이던 개인이 14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모처럼 찾아온 강세장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8.60%(127.51포인트) 급등한 1609.97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은 홀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
(24일 종가 기준)

종목명	금액(백만원)
삼성전자	279,741
SK하이닉스	94,589
셀트리온	78,924
삼성바이오로직스	32,340
엔씨소프트	21,921
아모레퍼시픽	17,698
삼성전기	13,254
한국전력	11,568

4612억 원어치 매물을 출회했다. 외국인도 834억 원을 팔았지만 전일(6428억 원) 물량과 비교하면 매도폭이 크게 줄었다. 기관은 5033억 원을 매수했다.

이날 코스피는 연기금의 대규모 매수 유입으로 반등을 이어갔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19일(1457.64)과 비교하면 10.43% 급등한 수치다. 비교적 단타 성향이 강한 개인들의 경우 이날 매도를 통해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센터장은 “최근 한 달 동안 개인이 매수해왔는데 저가에 샀던 개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며 “1500선이 깨졌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차익을 거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그동안 물려있던 매도 물량도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루간 개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은 삼성전자로 13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0.47% 급등한 4만6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은 2797억 원을 팔아치운 반면 외국인은 1303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어 SK하이닉스(-945억 원), 셀트리온(-789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323억 원), 엔씨소프트(-219억 원)를 중점적으로 팔았다. 반면 현대차(258억 원), 하나금융지주(141억 원), LG화학(103억 원), SK텔레콤(97억 원) 등을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안정과 글로벌 대규모 부양정책으로 장중 순매수 우위를 보이기도 했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준의 강력한 통화정책과 통화스와프로 달러 기근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며 “또 이날 대책회의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 기업유동성 공급,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이 나온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분기까지 전염병 확산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소비심리 둔화, 고용 감소 우려가 상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확진자 수가 한 달 이내로 감소세로 접어들거나 백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초저금리 시대, 대체투자에 주목해야”

편드를 말하다 ⑩ 김희석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

세계 주요국 코로나19 사태에 금리 내리고 경기 부양 나서
해외 자산 매수 전 자금 확보 ‘블라인드 펀드’ 활성화해야

“매크로(거시) 환경을 보면 대체투자에 우호적인 상황이 앞으로 10년은 지속된다. 대체투자는 통상 채권투자와 비교하는데 저금리 기조로 둘 사이 수익률 스프레드(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김희석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금리를 내리는 추세인 만큼 대체투자가 매우 유효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희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리セッション(경기 침체)이 나타난다면 자산가격 하락으로 대체투자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내리고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어 리セッション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체질 개선 주력…글로벌 운용사 목표 = 국내 대체투자 전문가로 첫손에 꼽히는 그는 국민연금 운용 전략실장을 거쳐 한화생명, NH농협금융지주 등에서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역임했다.

기관의 투자책임자로 일하며 국내 운용사들의 부족한 점을 고민했던 그는 대표 취임 이후 하나대체운용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목표는 회사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운용사로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홍콩에 아시아 거점 역할을 하는 인하우스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연내 미국과 유럽에도 글로벌 데스크를 신설할 예정이다.

선진국 수준의 운용 역량을 기르기 위해



김희석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가 12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딜 클로징에만 치중하고 향후 관리에 소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을 따

로 분리한 것이다. 긴 호흡으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운용사로 거듭나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국내 운용사들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에만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어 투자 성사 이후 자산 관리에는 신경 쓰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고객 불신은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운용사에 걸맞은 규모 확장도 그의 과제다. 김 대표는 부동산에 70%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인프라와 기업금융팀을 육성하고 있다. 취임 당시 90명 수준이던 인력도 내년 말까지 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8조6000억 원 규모인 자산도 연내 1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용업계 성장 위해 블라인드 펀드 활성화해야” = 특히 김희석 대표는 국내 운용업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전하려면 블라인드 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이후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PEF(사모펀드) 운용업계에 정착된 방식이지만 대체투자 쪽에선 투자 물건별로 펀드를 만들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고착화된 상태다.

김 대표는 블라인드 펀드 활성화가 운용사·투자자 모두에 이로워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용사 입장에서 해외 자산을 매수할 때 충분한 여유자금을 이미 확보한 상태면 딜 장악력이 생긴다”며 “판매자가 돈 있냐고 물어볼 때 ‘구해올게’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입금할 수 있어’라고 답하는 것은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또 운용사들이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해야 제대로 된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봤다. 물건별로 파편화된 투자만 이어간다면 운용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블라인드 펀드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운용사가 많아지면 투자마다 관여해야 하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며 “하나대체운용이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을 타깃으로 한 블라인드 펀드를 준비 중이고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블라인드 펀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이라며 “국내 운용업계 선진화를 위해 블라인드 펀드도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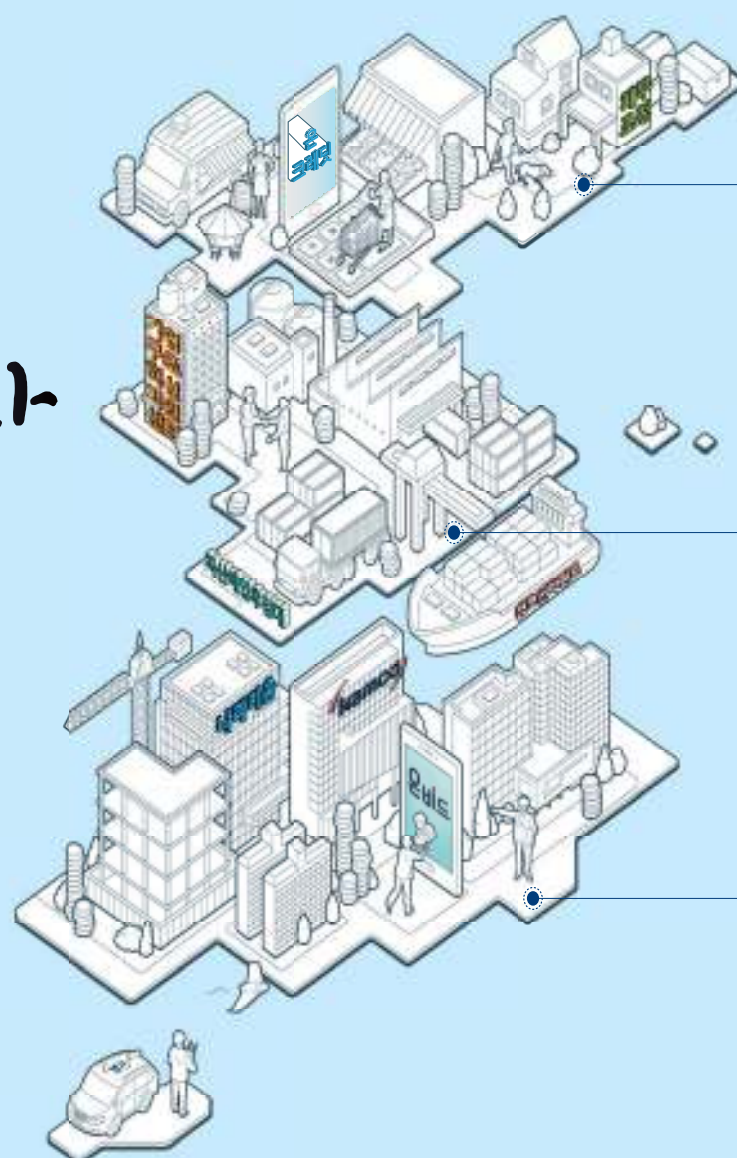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대표전화 : 1588-3570



가 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기 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 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작년 완전 자본잠식... 연간으론 처음

한계기업 돋보이기

에어서울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서울이 지난해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가 아닌 연간 단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2015년 4월 설립 이후 해마다 부분 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돼 왔다.

2016년부터 3년간 자본잠식률은 69.15%, 47.65%, 63.42%로 집계됐다.

2017년 50%를 하회한 것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3년 지속' 또는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사전 조치였다.

그해 연말 에어서울은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이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250억 원을 수혈해 잠식률을 50% 밑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듬해 다시 63.42%까지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엔 자본이 아예 마이너스(29억 원)로 전환하면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그 사이 부채는 622억 원에서 373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실적의 경우 매출액은 23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5% 증가했지만 당기순손실은 91억 원을 기록하며 304.1% 늘어났다.

에어서울 재무손익 현황

(단위: 억 원)

	부채	자본	매출	순손익
2019	3732	-29	2335	-91
2018	622	64	2215	23

※출처: 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

2015년부터 부분 자본잠식 상태 부채 622억에서 3732억으로 경증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에어서울을 상대로 100억 원의 대여를 결정했다. 그동안은 주로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를 해온 아시아나항공이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상환 방식의 대여를 선택했다.

차입 대가로 에어서울은 갖고 있던 100억 원 규모의 금호산업 대여금 채권을 아시아나항공에 제공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국토부의 개선명령 관련 조항이 강화되면서 에어서울을 향한 잣대가 더 엄격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이 될 경우 재무구조 개선 명령 대상이 되고,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면허 취소도 검토된다.

이에 올해 실적 반등 및 재무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일본 불매운동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항공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고대영 기자 kodaee0@

차익실현 나선 코로나 테마株 내부자들

랩지노믹스 특별관계자·EDGC 임원진 지분 매도 수익 챙겨 지난달 엠에스홀딩스 차익실현에 주가 하락 “투자 주의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로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대주주, 임원진 등 회사 내부자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해 대거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랩지노믹스 진승현 대표의 특별관계자인 진창현, 진지현, 한명수 씨는 전날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특별관계자들은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했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진창현 씨는 18만4000주를 1만7397원에 매도해 총 32억 원을 현금화했다. 이어 진지현 씨와 한명수 씨는 각각 8억4000만 원, 2억7000만 원을 챙겼다. 세 사람은 18일 지분을 팔아치웠는데, 당시 주가는 장중 최고 1만9400원까지 올라 당일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랩지노믹스는 실시간 유전자증폭 검사법(RT-PCR)을 활용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다.

수출용 허가를 획득한 후 미국, 유럽, 인도, 중동 등지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소식에 지난해 10월 4일 3980원까지 내렸던 주가는 5개월 만에 1만 원 후반까지 급등한 상태다.

같은 날 이원디아에그노믹스(EDGC)의 임원진도 보유주식을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김연철 상무이사는 9400원에 보유주식 6000주를 팔아 5억6400만 원을 챙겼다. 배진식 상무 역시 2억8000만 원을, 나희영 상무도 2억1400만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EDGC에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김준일 하나코비 대표이사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132만3863주를 장내 매도해 총 106억3900만 원을 챙겼다. 김대표의 매도가는 7247~8570원 선으로 52주 신고가에 근접한 수준이다.

EDGC는 계열사 EDGC헬스케어가 관계회사 솔젠트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유럽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코

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 묶였다. 현재 솔젠트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회사는 강원, 제이엠아이, 웰바이오텍 등이다. 솔젠트는 한 회사와 독점 공급권을 맺는 대신 다수 회사와 해외 진단키트 공급을 맺고 있다.

지난달에는 마스크 기업의 주가가 오른 사이 대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팔아치우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모나리자 최대주주인 엠에스홀딩스는 주식 394만3618주를 팔아치워 273억7157만 원을 챙겼다고 공시했다.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마스크 테마주로 엮인 웰크론은 2대주주인 강원이 보유주식 179만2625주를 전량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강원이 현금화한 금액은 127억3300만 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테마주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이기에 재료가 소멸된 후 피해는 투자자 몫으로 돌아간다”며 “내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임원진이 해당 시점에서 주식을 팔았다는 건, 향후 주가가 상승할 재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기자 ljh@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우려

상장사 재무 분석

일야

코스닥 상장사 일야가 매출인식 기준 변경으로 지난해 경영실적이 적자 전환하면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의 성사가 더욱 절실하게 됐다. 유증을 통한 자원 조달에 성공해야 자본 확충과 차입 상환, 신사업 진출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일야는 지난해 영업손실을 내면서 2017년부터 3년 연속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까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면 4년 연속 영업손실로 내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일야는 지난달 잠정실적으로 연결기준 영업이익 5억여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998억 원으로 246.9% 급증했고 1억여 원의 순이익도 났다.

하지만 외부감사 결과 나온 최종 성적표

일야 잠정 및 외부감사 지표 변화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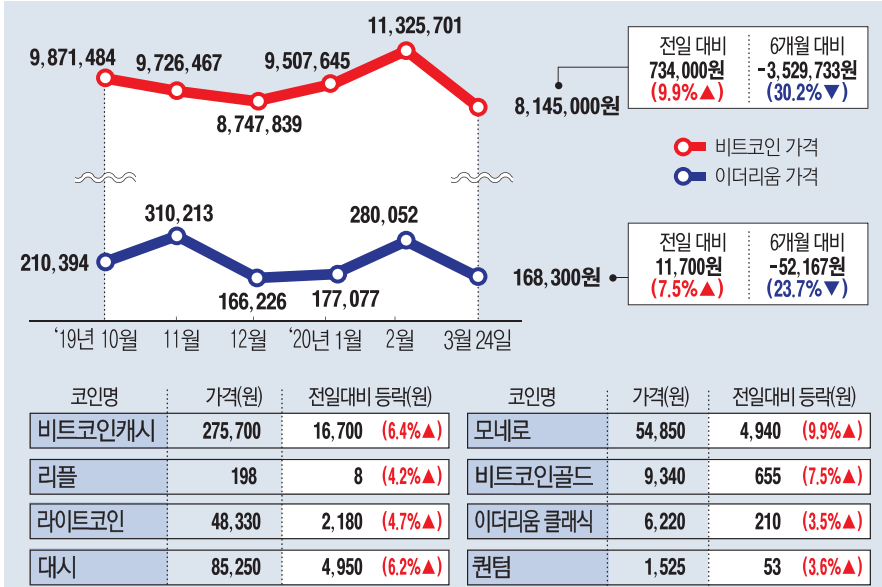
	잠정결산	외부감사
매출	99,795	30,205
영업이익	558	-4,135
순이익	123	-3,345
자산총계	46,839	43,816
부채총계	32,831	33,186
자본총계	14,000	10,630

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5억여 원의 영업이익은 41억 원의 영업손실로 반전했고, 매출 역시 302억 원으로 규모가 3분의 1로 줄었다. 아울러 33억 원의 순손실로 결손금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재무 안정성도 훼손됐다.

별도기준 실적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44억 원, 34억 원에 매출은 354억 원을 기록했다. 2017년 -31억 원, 2018년 -42억 원에 이은 3년 내리 영업손실이다. 만일 올해까지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계속되면 내년 이맘때쯤 감사보고서 발표와 함께 코스닥시장 퇴출요건에 따라 4년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3월 24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KB국민은행 Win.K 체크카드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제라인출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중점을 두는 영업의 성격을 가지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여의치않음에 따라 해금보통공시가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에 한해 MTS 해금 시 0.014%의 수수료에 수수료를 더 적용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수주도 ‘부익부 빈익빈’...강남·한강변만 몰린다

갈현1·홍제3구역 시공사 잇단 유찰
대부분 경쟁입찰서 수의계약 전환
수익성 떨어져 대형건설사 외면 탓

반포3주구·한남3구역 등 과열경쟁
공사비·상품 차별화 가격 제안도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수주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간 온도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와 용산구 한남3구역 등 강남권 혹은 한강변에 위치한 사업장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반면 강북지역의 경우 경쟁 없는 ‘무혈 입성’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들이 일감 부족 속에서도 이른바 ‘돈이 되는’ 사업장에만 눈독을 들이는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조합은 23일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실시한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자

주요 정비사업장 참여 건설사			
사업장	가구수	사업비	관심 건설사
갈현1구역	4116	9182억 원	롯데건설
홍제3구역	634	1686억 원	현대건설
한남3구역	5816	1조8881억 원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
신반포15차	673	2098억 원	삼성물산, 대림건설, 호반건설
반포1단지(3주구)	2091	8087억 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 대우건설 등



동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달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대건설과 시공계약을 맺었다. 당초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지만 현대건설만 관심을 보이면서, 결국 조합은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은평구 갈현1구역도 2차례 유찰 이후 단 독립찰한 롯데건설과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구역 조합은 롯데건설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 다만 예정됐던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상태다.

최근 일감 부족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자인 갈현1구역을 비롯해 강북지역 대부분 정비사업장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모습이다.

반면 강남권과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일부 강북지역 정비사업장에는 건설사들이 전사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 수주전은 ‘별들의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경쟁한 건설사들이 뛰어들 태세다. 이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수주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직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들 건설사들은 공사비, 상품 차별화, 분양 특화 전략 등에서 획기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앞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전에는 삼성물산이 무려 5년 만에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 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삼성물산은 일찌감치 ‘레미안 원 펜타스’라는 단지명을 제안하고 수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대림

건설도 자사 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아크로(ACRO)’를 내세우며 입찰에 뛰어들었고, 호반건설은 390억 원 규모의 무상품목 지원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면서 대형 건설사들과 정면 승부에 나섰다.

한강변 주요 입지로 한남3구역의 경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요주의 재개발 사업장으로 지목될 만큼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건설이 수주전에 참여한 상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건설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치 않은 사업장은 아무래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신정동에 2호선 ‘신정교역’ 신설 추진

‘목동 14단지’ 최대 수혜지로 떠올라

서울시 타당성 조사...내년 초 윤곽

서울시가 양천구 신정동에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역을 새로 만들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3일 ‘2호선 신정지선 역 신설 안(案)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2호선 신정지선 도림천역과 양천구청역 사이에 역을 새로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배후수요 등 경제성은 갖췄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신정지선은 신도림역에서 2호선 본선과 갈라져 구로구 신도림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화곡동 등을 잇는 노선이다. 이 중 도림천역~양천구청역 구간은 80% 이상이 신정동에 속해 있어, 신설 역이 생긴다면 신정동에 생기는 게 확실시된다.

역 신설은 신정동 일대의 숙원이었다. 신정동 S공인 관계자는 “아침이면 이 동네는 교통지옥이 된다”며 “지하철을 타려면 양천구청역까지 20~25분을 걸어가거나 만차마을버스에 구겨 타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목동아파트 14단지 등 신정동 일대 12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역 신설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지하철 유치에 나섰다. ‘신정교역’이란 가칭도 미리 붙여냈다.

요구가 거세지자 양천구와 서울수도 역

‘신정교역’ 신설 검토



신설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용역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사전 타당성 조사를 조사할 용역업체를 정해 늦어도 내년 2~3월께엔 결론을 받아볼 계획이다.

관건은 사업성이다. 일각에선 1.5km 떨어진 도림천역과 양천구청역 사이에 역을 새로 만들면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간 평균 거리는 1km 정도인데, 그보다 역간 거리가 짧아지면 이용 수요가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최대 수혜주는 목동 14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동 주민 등은 목동 14단지 테니스장 부근을 신정교역 위치로 점친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상반기 분양정보는 ‘자이TV’로”

GS건설, 유망지역 집중 조명
향후 가치·개발호재 등도 분석

GS건설이 이달 말 유튜브 채널 ‘자이TV’를 통해 올해 상반기 분양 예정 아파트를 집중 소개한다.

자이TV의 ‘부동산 왓(What)수다’를 통해 방영될 이번 영상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유망 지역 △시청자별 전문가 맞춤형 솔루션 △상반기 자이 분양 단지 추천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조우종 씨가 사회를 맡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명기 GS건설 주택분양관리팀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출연한다. 특히 이번 영상은 분양팀장 및 전문가들이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직접 분양 예정 단지들을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급 예정 물량과 분양 시기만을



GS건설의 유튜브 채널 ‘자이TV’에서 방영하는 ‘부동산 왓(What)수다’의 한 장면.

전달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정보 전달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전문가들이 나서서 수요자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향후 예상 가치나 개발 호재, 시세 변동 등을 설명하며 해당 단지 청약에 나설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 분양팀장이 직접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해 신뢰도를 높인 데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더해져 자이TV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우리집엔 어떤 스타일의 마루가 어울릴까요?

마루는 우드패턴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SB마루를 만나보세요.
우드패턴은 물론 대리석 패턴, 헤링본 시공도 가능하며,
에스비 강, 에스비 엠보까지 다양한 마루로 인테리어 스타일을 빛나게 합니다.

실용성에 스타일까지 갖춘 강마루 - 한솔 SB마루



한솔 sb마루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마루
대리석 / 우드 / 헤링본 / 에스비 강 / 에스비 엠보



습기에 강한 실용마루
장시간 습기에 노출시에도 치수 변화 및 팽창에 안정적



친환경 소재의 건강한 마루
아토피인증, 항곰팡이 인증 획득

※제품별 친환경성 인증 표지 부착 사용(화도, 프리미엄)

“조국 지명 전 검찰 내사 없었다”

법원, 정경심 측 수사보고서 열람 신청 44건 중 2건만 허용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인지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전후해 부당한 목적으로 내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으로 불거진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국회의원들의 고발장과 검찰의 범죄인지서 등 44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2건만 인용했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문서 가운데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받은 동양대 강사실 PC 등 수사보고서의 일부만 허용했다. 해당 자료들은 임의 제출받은 물건에 대한 압수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열람·등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달 11일 △국회의원,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장 △검찰이 작성한 범죄인지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한 수사보고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분석한 수사보고서 등 44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18일 열린 공판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이)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배우자(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라며 “내사가 있었는지가 계속 문제가 됐고, 검찰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 수사 자료를 재판에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는데 재판에 와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인지서는 검찰 수사가 처음 개시됐을 때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판단할 주요 자료”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일부는 지난해 8월 22일~10월 25일 작성된 것”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정 교수 측)의 주장과 같이 2019년 8월경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은 정 교수와 조범동 씨 등에 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서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는 대부분 보도된 언론기사”라고 설명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민식이법’ 시작… 스쿨존 속도 줄이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 수원시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곡정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 스쿨존 안전수칙 전단지들을 나눠주고 있다. 뉴시스

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 공개

오늘 檢 송치 전 종로경찰서에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2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5조를 근거로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

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 씨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면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9일 구속됐다. 김소희 기자 ksh@

법원, 조현범 보석 허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빚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애펀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대표는 이달 1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6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조 대표가 빚돈을 수수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종용 기자 deep@

다시 문 여는 학원들... 서울 휴원율 11.3%

정부 압박에도 “생존 위기” 반발

서울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휴원율이 10%대 초반으로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학원과 교습소 휴원율은 11.3%(2만5231곳 가운데 2839곳 휴원)로 20일(26.8%)보다 15.5%포인트(p) 떨어졌다.

서울 학원과 교습소 휴원율은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3월 둘째 주 40%대까지 올랐지만 이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학원가인 강서·양천구와 노원·도봉구는 휴원율이 각각 5.6%와 6.2%에 그쳤다. 성북·강북구와 은평·마포·서

대문구도 휴원율이 8.6%와 9.6%로 10%를 밑돌았다. 동작·관악구(21.7%)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휴원율이 20%를 밑돌았다.

정부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원명을 공개하고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하는 한편 휴원한 영세학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보증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원들은 정부가 유치원에는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학원에는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 지원만 해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학원 휴원은 더는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면서 “방역단을 구성해 학원과 주변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재미공감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1년내 ‘뇌출혈·급성심근경색’ 발병해도 전액 지급

삼성생명 | New올인원 암보험1.0 처음부터 끝까지 |

삼성생명은 ‘New올인원 암보험1.0 처음부터 끝까지’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매달 1만 건 이상 판매되는 삼성생명의 대표 보험으로 1년 이내 주요 질병 발병 시 50% 삭감되는 조항을 없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달 개정된 ‘New올인원 암보험’은 보장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감액기간을 없앴다. 기존에는 암과 특약으로 보장하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의 50%만 지급됐다. 하지만 2일 개정을 통해 감액 기간을 없앴다. 단,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은 1년 이내 암 확정 시 기존과 동일하게 50%만 지급된다.

아울러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에선 주보험의 전립선암 보장 금액이 확대됐다. 유방암·자궁암과 동일한 한도로 확대되었으며 가입금액은 5000만 원까지다. 그 외 갑상선암과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방광암 등의 ‘소액암’ 진단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관지, 폐암 등 고액암으로 진단받을 경우에는 일반 암에 비해 2배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암 발병 전 단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처음 도입됐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보장특약, 위·십이지장·대장 등 7대 기관 양성신생물 수술보장특약’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암 발병 이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사망·일반 질병·장기간병까지 평생 보장

교보생명 | (무)교보 실속있는 건강플러스 종신보험 |

교보생명은 차세대 종신보험 상품인 ‘(무)교보 실속있는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업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장을 더한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그동안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사망해야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기존 종신보험의 단점을 해소하고 저렴한 종신보험으로 살아 있을 때 질병 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생활자금형 종신보험을 2세대로, 저해지 종신보

험을 3세대로 구분하면 이 보험은 4세대 종신보험으로 분류된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에 건강보장을 결합한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으로 사망과 일반 질병(GI), 장기 간병 상태(LTC)까지 평생토록 보장받을 수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GI와 LTC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80%를 진단보험금으로 미리 받아 치료비나 간병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과 중증치매, 말기신부전증·말기 간·폐질환·루게릭병·다발경화증·중증루프스신염 등의 질병도 함께 보장한다.

고혈압·당뇨 환자·80세 고령자도 간편 심사로 가입

한화생명 |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 |

한화생명은 유병자와 고령자도 간편 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을 내놴다. 이 상품은 간편 심사를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고혈압·당뇨 환자는 물론, 80세까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들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상품은 상해사망을 주계약으로 실속형과 기본형, 고급형, 자유설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소 보험료 3만 원 기준을 충족하면 고객이 원하는 특약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내게 맞는 맞춤형 보험설계가 가능한 DIY 보험이다.

아울러 이 상품은 기존 간편가입 보험에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수술 등 5개 특약 구성을 35개로 다양화했다. 최근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대상포진 및 통풍, 뇌혈관질환, 당뇨 및 합병증, 인공관절·관절염·백내장·녹내장 수술자금 등 다양한 질병들도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가입 연령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간편 보험은 최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 상품은 가입 연령을 최대 80세까지 늘려 100세 시대에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동시에 납입 면제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간편보험에서는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면 납입 면제 대상이었다. 이 상품은 발병 빈도가 높은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도 발병하면 납입 면제가 되도록 설계했다.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 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내 PC 원격접속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며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	채팅&메신저(WE톡) 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쪽지,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전용 메신저입니다.	화상회의 국내와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면과 문서를 공유하며 다자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일괄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팩스 팩스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빠르게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메일(1G) 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전용 메일 서비스입니다.	전자결재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보고가 가능하며 제록군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웹오피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웹 기반 오피스입니다. 이제 설치해서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드라이브(10G) 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	일정관리 일정 초대와 공유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위치, 자료, 태그,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	할일관리 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는 지시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기본정보관리 조직도를 통한 직원검색, 수많은 거래처,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연대이트/공유, 다양한 타인의 회사계시판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보험료 10.4% 저렴... 有병력·만성질환자도 100세 보장

삼성화재 | 다이렉트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

삼성화재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을 업계 최초로 자사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과거 치료 이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객들도 가입 가능한 인터넷 전용 보험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은 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가 자사 다른 채널 대비 10.4% 저렴한 것이 특징이란 설명이다. 가입 후 매년 갱신을 통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고, 3년마다 재가입 여부를 결정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은 3가지 기준에만 부합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보험이다. 간편심사 기준은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2년 내 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 여부 △5년 내 암(백혈병 제외) 진단·입원·수술·치료 여부 등이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은 일반 실손의료비보험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실손의료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이 최소 10%인 반면,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30%다. 또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은 처방조제비와 비급여 추가 특약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장기간병요양 5등급·뇌전증 등 보장 영역 6종 확대

DB손해보험 | 참좋은혜밀리플러스+ 종합보험 |

DB손해보험은 장기간병요양 5등급, 뇌전증 등 업계 최초 6종의 신 보장 영역을 발굴해 기존 보장을 한층 강화한 새로운 종합보험인 '참좋은혜밀리플러스+ 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첫 번째 신규 보장으로 노인장기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 진단비(1-5등급)'를 포함했다.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정으로 1~3등급으로 운영하던 노인장기병등급 3등급이 3, 4등급으로 분리 및 5등급이 신설됐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

~51점인 경우 판정받을 수 있다. 기존 업계에서는 1~4등급을 보장하는 진단비는 판매 중이나 5등급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개발해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두 번째 신담보는 '뇌전증진단비'로 흔히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최근 3개년 평균 14.4만 명이 앓고 있는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포함되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신규 개발된 뇌전증진단비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건강검진서 혈압 등 '정상'이면 보험료 할인

KB손해보험 | KB다이렉트 건강이 아껴주는 암건강보험 |

KB손해보험은뱅크샐러드 운영업체인 레이니스트와 협업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KB다이렉트 건강이 아껴주는 암건강보험'을 판매 중이다.

뱅크샐러드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이 상품은 가입 시점에 고객이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이력과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확인된 건강검진 결과 중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및 체질량지수가 '정상A'인 경우 보험료를 납입 전 기간에 걸쳐 10% 할인하며 보험가입 직

전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만 확인돼도 최소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검진 이력·결과는 보험료 할인에 대한 정보로만 활용하고 보험가입을 위한 인수심사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고객의 구체적인 건강정보는 별도 데이터로 저장하지 않아 고객은 안심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손보는 지난해 5월 레이니스트와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으며 'KB다이렉트 건강이 아껴주는 암건강보험'을 협약 체결 이후 첫 출시된 상품이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KB손보는 뱅크샐러드에 건강검진 결과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난 위치 확인·식중독 비용 등 낚시 맞춤형 보장

메리츠화재 | 낚시안심서비스 |

메리츠화재는 클라우드 보험 플랫폼 인바이유 및 해양 낚시 예약 플랫폼 마도로스과 제휴를 맺고 업계 최초로 '낚시안심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낚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낚시 맞춤형 안심서비스'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자가 자세한 위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경찰이 사고 장소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치 확인 서비스'와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최대 3명)에게 신고와 동시

에 알람이 가는 'SMS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배가 전복된다거나 혼자 물에 빠지는 등의 고립 사고가 많은 낚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낚시 중 사망 및 후유장애, 골절 수술비, 식중독 비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강력범죄 비용 등을 보장하는 낚시 보험이 함께 제공된다.

가입은 만 15~70세까지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료는 1일 2000원이다.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가입은 마도로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고객 대상 낚시안심서비스 상품출시 및 업무제휴 협약(MOU)



월 2500원에 운전자 '형사 책임·법률 행정비용' 해결

한화손해보험 | OK2500 든든 운전자보험 |

한화손해보험은 월 2500원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집중 보장하는 온라인 전용 장기보험 상품 '한화 OK2500 든든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한화다이렉트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인형사합의실손비(최대 1억 원) △자동차사고 대인 벌금(최대 2000만 원) △자동차사고 대물 벌금(최대 500만 원) △자동차사고 변

호사 선임비용(최대 2000만 원) 등 운전자의 중과실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비용'을 담보한다. 월 25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플랜으로 보험료를 최소화한 미니 운전자보험"이라며 "고객도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간편한 방법으로 가입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5·10·15·20년이며,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은 초회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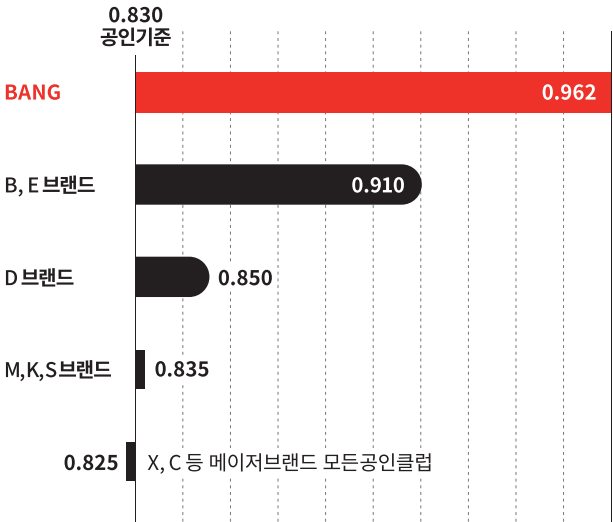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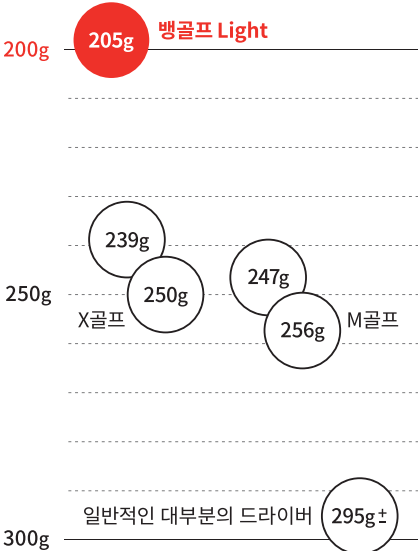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3대가 함께…“농사는 ‘숙명’ 이자 ‘소확행’ 이죠”

퍼밀 ‘스마일농부 캠페인’ 1호…한나농장 김한나 씨

‘천혜향 1세대’ 할아버지, 유통은 아버지, 자신도 농업 전공
농가 지원 펀딩 프로젝트…주문 확인·택배 포장 모두 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은 잘나가던 농가도 순식간에 덮쳤다. 외출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손님이 줄자 농가 매출도 덩달아 빠졌다. 식탁이있는삶의 스페셜티푸드 플랫폼 ‘퍼밀(permeal)’은 코로나19로 유통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펀딩 프로젝트 ‘스마일농부 캠페인’을 선보였다.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천혜향 농사를 짓는 20대 농부 김한나(23) 씨의 ‘한나농장’이 선정됐다. 김 씨의 할아버지는 국내 천혜향 보급과 상품화에 앞장선 천혜향 1세대 김찬오 농부다. 감귤보다 늦게 수확하는 만감류 천혜향은 3월이 수확 적기이지만, 한나농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바람에 납품하던 거래처가 줄어 온라인 판매를 늘려야 했다. 그러던 중 퍼밀과 함께 펀딩을 시작했고, 한나농장의 차세대 일꾼 김 씨가 펀딩 전면에 나섰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와 유통을 책임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 씨에게

농사는 숙명이었다. 그는 “농부는 100% 의지로 선택한 직업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장녀니까 농사일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다”며 “그러다 보니 진로를 고민할 즈음 매일 뛰어놀던 집 앞 과수원이 내 집같이 편안하게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일을 물려받게 됐다”고 말했다.

진로를 결정한 김 씨는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했다. 졸업 후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했다. 농사를 이론으로 배운 만큼 실전에 나서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 농사는 할아버지 소관이다. 할아버지가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김 씨는 보조 역할을 하며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있다. 그는 “열매숙기, 배수 관리, 비료 살포, 하우스 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부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 경영적인 측면도 할아버지께 배우고 있다”라며 “할아버지가 안심하고 농사일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제가 농사에 얼마나 애정이 많고, 이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는지 매일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퍼밀과 함께하는 펀딩만큼은 젊은 농부



스페셜티 푸드 플랫폼 퍼밀의 ‘스마일농부 캠페인’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나농장 김한나 씨가 제주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3월이 수확 적기인 천혜향을 따고 있다.

인 그의 소관이다. 주문을 확인하고 직접 택배 포장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의 손을 거친다. 김 씨는 “주문이 100상자 정도만 들어와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2배 넘게 팔리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온라인 판매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론과 현장 경험을 쌓은 김 씨는 올해부터 500평 과수원 농사에 직접 뛰어든다. 그런 만큼 농사를 대하는 책임과 각오가 남다르다. 김 씨는 “천혜향은 외국 품종인데 ‘가을향’ 등 국내 다양한 만감류가 많

이 있다. 이를 알리고 상품화하는 데 힘쓰고 싶다. 또 만감류는 크기가 작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만큼 중간 크기로 고르게 재배하는 법을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제게 농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 자체다”라며 “정성과 노력을 다해 생명을 키워내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자연과 함께 살며 마음에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농사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한컴위드 홍승필 신임 대표 선임
김현수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로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한컴위드는 홍승필<사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하는 한편 기존 김현수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홍승필 신임 대표는 지난해 7월 신사업 총괄(COO) 부사장으로 한컴위드에 합류했다. 지난 8개월간 정보보안 중심이었던 기존의 사업구조를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 플랫폼 중심의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홍 신임 대표는 카이스트 정보보안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LG CNS 및 대학에서 실무 경험과 학술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 경영인이다. 22년간 블록체인과 핀테크, (개인)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며 정부의 관련 자문 및 평가위원을 두루 지내는 등 블록체인 분야의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조성준 기자 tiatio@

FIFA 코로나19 캠페인 참여한 박지성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39)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작한 캠페인 영상에 등장했다. 코로나19에 맞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수칙을 소개한 이번 영상 제작에는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알리송(브라질),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 사비 에르난데스(스페인), 잔루이지 부폰(이탈리아) 등 28명의 전현직 선수들이 참여했다.

동양생명 ‘수호천사 인형 만들기’
손소독제 함께 다문화가정 전달

동양생명은 24일 국제구호개발 NGO인 재단법인 한코리아와 함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수호천사 착한 인형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호천사 착한 인형 만들기’는 임직원 및 설계사들이 수호천사 캐릭터 펠트 인형을 직접 만들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2016년부터 매년 한코리아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완성된 약 200개의 인형은 검수와 소독 과정을 거쳐 내달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세정제, 물티슈 등을 추가했다.

서지연 기자 sjy@

김하진 365mc병원 대표병원장
서울대 발전기금 3000만원 기부

365mc병원은 김하진<사진> 대표병원장이서울대학교에 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부금은 서울대 인재 양성을 위해 쓰인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금을 쾌척한 김하진 대표병원장에게 존경과 감사의 내용을 담은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하진 대표병원장은 “은 세상에 사람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사회공헌 비전을 365mc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우리나라 학술 연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어업인도 소비자도 불만인 수산물 유통 바로잡겠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취임 2년차 맞아 ‘도매거래 고강도 쇄신’ 밝혀

26일로 취임 2년 차를 맞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어업인도 소비자도 불만인 수산물 유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임 회장은 올해 수산식품연구실과 경영전략실 신설, 노량진수산물시장 직출하전담팀 구성 등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나선다. 임 회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수산물 유통 현장을 혁신하기 위해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과 기존 도매거래 체계를 개선하는 두 트랙 전략을 내놔다. 임 회장은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새 인프라 구축 작업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남은 반면 어업인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임계치에 이르렀다”며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에는 역대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 예고 없이 노량진수산물시장 경매현장을 찾아 정가수의매매 중심으로 굳어지는 기존 도매거래 체계에 대한 고강도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임 회장은 “어민이 목숨을 담보로 건진 수산물이

제값 받게 하는 게 수협이 해야 할 일”이라며 관계자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가격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경매 위주로 도매시장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임 회장은 취임 1년 동안 수산업에 40년 가까이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어업인과 회원조합들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어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면제 혜택을 8000만 원까지 확대한 것을 비롯해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방식을 목표자금제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끌어내면서 전국 수협



임준택(가운데) 수협중앙회장이 1월 21일 서울 가락동 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경매에 출하된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조합들이 매년 200억 원 가까운 순이익 증가 효과를 얻게 됐다. 특히 3년 넘게 끌어왔던 노량진수산물시장 구시장 불법점유 문제도 마무리 짓는 등 취임 후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美 ‘코로나19 키맨’ 파우치, 트럼프 향해 소신 발언

“마이크 앞에서 그를 밀쳐낼 수는 없지 않나”

“마이크 앞에서 뛰어들어 그를 밀쳐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꼬장꼬장한 모습으로 존재감을 보여온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자이자 의사인 79세의 파우치 소장은 사이언스 잡지

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일 브리핑에서 잘못되거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발언을 할 때 옆에서 서 있는 게 어떨까는 질문을 받고 “오케이, 그는 그렇게 말했다. 다음번에는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계속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이 3~4개월 전에 사실을 제대로 알렸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었다.

파우치 소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에 “나도 안다.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고 반문한 뒤 ‘적절한 인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부정확성에 대해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 그가 내놓은 메시지에 대해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한가운데서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사실에 입각하도록 하는 엄청난게 힘든 임무를 맡고 있다”며 “이제 파우치의 좌절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홍석동 기자 hong@

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 급 전보 △공직감찰본부장 김명운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산업정책실장 강경성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기획과장 장은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장 박종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미안

마대사관 지동선

◆금융투자협회 ◇비상근부회장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회원이사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 △김진 SK증권 대표이사 ◇공익이사 △김영과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환경미디어그룹 ◇한국경제신문 △대표이사 김정호 △상임논설고문 이학영 △상무이사 경영지원실장 현승운 △상무보 광고국장 송광림 ◇한국경제매거진 △대

표이사 유근석 ◇한경BP △대표이사 손희식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신항철 △사장 이순국

◆서울문화사 △우먼센스·여성경제신문본부장(이사대우) 이창희

부음

▲민영철 씨 별세, 민은경·선아·선영 씨 부친상, 이규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최판균(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

사국 수석검사역)·고영근(동원에프엔비유가공본부 제주시점장) 씨 장인상 = 2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26일, 02-3010-2294

▲김옥자 씨 별세, 강인숙·지숙·원숙·진일(KB손보 고객센터장)·미나 씨 모친상, 김영섭(사업)·박순영(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 부장)·김민승(바른문화의원 원장) 씨 장모상, 정지영(약사) 씨 시모상 = 23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31-787-1501

유럽은 지금



안 병 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보통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고, 좋은 일은 아주 가끔 온다고 한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 앞에서 EU 회원국들이 연대해 유럽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강화해야 하지만 아직 구호에 불과하다. 거대한 경제 쓰나미 앞에서 EU 회원국 내 독일처럼 그래도 재정 여력이 있는 ‘북’유럽과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여력이 없는 ‘남’유럽 간의 갈등은 더 커져 갈 것이다.



성아영의
발명 이야기

대구가톨릭대 바이오메디칼대학 교수

올해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전전사회(CES)에서 공개된 스마트렌즈는 콘택트렌즈 형태로, 그 안에는 인치당 1만4000개의 픽셀이 들어간 초소형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칩이 탑재되어 있다. 렌즈를 착용한 후 정면을 바라볼 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측면으로 눈동자를 돌리면 ‘일정’이나 ‘날씨’ 또는 ‘음악’ 등의 메뉴 화면이 보인다. 여기서 ‘일정’ 메뉴를 바라보면 오늘의 일정이 나타난다. ‘스피치’라는 메뉴도 있어서 연설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원고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준비한 발표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간단한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렌즈에는 동작을 감

보통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고, 좋은 일은 아주 가끔 온다고 한다. 현재 ‘유럽’(유럽연합, EU) 상황이 그렇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 앞에서 EU 회원국들이 연대해 유럽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강화해야 하지만 아직 구호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 주요 회원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상황이 제일 심각한데 아직 절정에 이르지 못한 듯하다. 지난 1월 31일 EU에서 탈퇴한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백신이 없고 국민들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발언했다가 폭풍 비난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대규모 재정 부양과 휴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2일 큰 실수를 했다가 겨우 뒀수습을 했다.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금리의 추가 인하도 없었고 회원국 국채와 회사채를 매입하는 추가적인 자산매입 규모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결정적 실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회원국 국채의 금리 차이를 메우는 게 ECB 업무가 아니다”라는 발언이었다. EU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19로 최대 위기를 겪는 이탈리아는 올해

-7.5% 정도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가뜰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리아에서 자금을 빼나가는 데 ECB 총재가 이를 더 부채질했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단일화폐 유로존을 사수하겠다는 발언이 있으리라는 일부에서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ECB는 18일 밤 긴급회의에서 7500억 유로(약 1030조8300억 원)의 채권 추가 매입을 발표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보유한 정책수단을 거의 다 써서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에 공조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EU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은 지난 5년간 흑자재정을 기록했다. 독일은 현재까지 자국 우선 정책을 펼친다. 확장재정이 가능한 나라가 대규모로 돈을 풀고 EU 차원에서도 이를 보완해야 하는데 말이다. 독일은 헌법(기본법)에 명시된 사실상 균형재정 조항 때문에 정부 재정을 아주 인색하게 운영해왔다. 일단 메르켈 총리가 “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도전”이라며 코로나19가 이 조항의 예외임을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용 확장재정이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해 EU 회원국 가운데 최저 비중이다. 국내의 비난에 직면하자 추경예산을 4% 늘렸다. 프랑스는 일단 GDP의 1.8%로 책정했다.

최악의 위기 진앙지가 된 이탈리아는 EU에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다. EU 회원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을 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이 8일 긴급 의약품 31t을 지원한 데 이어 의료진 300명을 파견했다. 2017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난민 신청자들이 이탈리아로 대규모 몰려들었을 때도 다른 회원국들은 이탈리아의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듬해 3월 총선에서 반이민, 반이슬람을 앞세운 북부동맹이 2위 정당으로 부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부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총재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우리는 이제껏 EU를 도왔지만 EU가 우리를 버렸다”며 공격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2일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 후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하루 만에 0.4%포인트 치솟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거의 투매하다시피 했다. ECB가 6일 만에 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도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EU 경제가 최악의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U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회원국들이 경제력으로 지급보증을 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용 단일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정부 재정에 덜 부담을 주면서 일부 EU 회원

국, 특히 이탈리아처럼 최악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도울 수 있다. 당연히 가장 많은 부담을 지게 될 독일이 반대한다. 또 하나는 5000억 유로 규모의 단일화폐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의 전용 여부이다. ESM은 원래 경제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조건부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코로나19는 회원국 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조약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채권 발행과 ESM을 코로나 극복에 활용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무래도 경기침체가 장기간 계속되고 이탈리아 등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이 더 크게 세력을 확장한다면 최후의 정책수단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경제 위기는 2년 전 겨우 수습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EU 회원국에 태풍급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독일조차 올해 -1.5% 정도의 경기하락이 전망된다. 거대한 경제 쓰나미 앞에서 EU 회원국 내 독일처럼 그래도 재정 여력이 있는 ‘북’유럽과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여력이 없는 ‘남’유럽 간의 갈등은 더 커져 갈 것이다. 이래저래 위기 앞에서 EU는 단결해 연대하자는 구호는 높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천은 부족하다.

시력을 넘어 정보를 담는 스마트렌즈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하는 동작감지 센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모조비전에 따르면, 모조렌즈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증강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콘택트렌즈에 담기 위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적용했다. 시선 추적을 통한 인터페이스로 착용자만 볼 수 있는 화면을 구현해 화면 측면에 배열된 아이콘을 쳐다보고 사용할 기능을 선택한다. 스마트 콘택트렌즈에 시선 추적 기능이 있는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모든 것을 장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조비전의 시제품은 실제 콘택트렌즈가 아닌 가상 현실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 버전 제품은 시선 추적 및 추후 반복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단순한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일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착용형 디스플레이인 노스 포칼

스나 구글 글래스와 달리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많은 검사·평가를 거쳐야 한다. 특별히 스마트렌즈는 인체에 직접 착용하는 웨어러블기기인 만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착용 시 망막이나 시신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안구에 직접 접촉되는 렌즈의 흡수율, 습윤성(접촉각), 인장강도, 투과율 등의 물리적 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필자는 20년 이상 콘택트렌즈의 신소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안경렌즈나 안경테 등의 시각 보조기구와 다르게 콘택트렌즈는 소재의 물성이 렌즈의 제조과정 및 착용감 그리고 안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하나의 기능적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렌즈 소재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요소를 만족

시키지 못하면 상용화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나노기술의 발달로 콘택트렌즈 안에 휘어지거나 구부러질 수 있는 소형 센서를 부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기술이 되었으나, 착용 시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구면이라는 형태를 유지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의 착용감을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기술은 계속 진화해가며 그 진화의 과정에서 관련된 서로의 영역이 융합 또는 복합되어 발전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료라는 생명공학적 관점이 특별히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바이러스 문제의 심각성 또한 인식하게 된다. 특별히 안구에 접촉되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콘택트렌즈의 특성으로 볼 때 의료적 문제점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래에 관한 얘이기도 하다. 경제학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미래 가치는 현재가 치보다 늘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정규업체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와 현재로부터 미래가 온다는 것, 미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반복된다는 진리를 놓치고 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라”는 말이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말이다.

“페스트균은 꾸준히 살아남아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을 것이다.” 요새 다시 ‘햇’해진 카뮈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 노먼 블로그 명언
“식량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도덕적인 권리이다. 식량 없이는 사회정의의 위한 다른 모든 요소들은 무의미한 것이다.” 미국의 농학자. 다수확품종인 멕시코 밀을 육성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이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14~2009.

☆ 고사성어 / 조제모염(朝齋暮鹽)
냉이와 소금만으로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몹시 빈곤한 생활을 뜻한다.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송궁문(送窮文)이 원전. 한유는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다섯 가지의 일들을 귀신으로 묘사하고, 이것들을 쫓아버리려는 자신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의인화된 궁귀(窮鬼)에게 세 번 읊하고 자신으로부터 떠나줄 것을 간청하자 궁귀의 대답. “저와 선생님이 함께 살아온 지 40여년이 되었습니다. 태학에서 4년간 공부하는 동안 아침에는 냉이 나물을 먹고 저녁에는 소금으로 반찬하며[大學四年 朝齋暮鹽], 오직 저만이 선생님을 보살피 주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 시사상식 / 통화 스와프
두 국가가 현재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차입액에 해당하는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담보로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이다.

☆ 유머 / 요즘엔 어려운 시사상식
대학 면접고사장. 교수가 수험생에게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고 질문했다. 수험생이 대답을 못하자 답답한 교수가 “이승만” 하고 소리 지르자 수험생이 일어나 나가려 했다.

교수가 “어디 가느냐?”고 하자 그 수험생 대답. “다음 학생 부르신 거 아녜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재미없으시죠?”
얼마 전 모 화학사 관계자와의 미팅. 혼자 한참을 얘기하다 내 김새가 이상했는지 대뜸 묻는다. 주제는 ‘기후변화’. 유럽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이 기후변화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에 얼마를 투자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던 참이었다.

“한국에서는 기후변화라는 말에 전혀 반응을 안 해요. 미세먼지를 앞세우면 그나마 듣는 정도랄까. 오히려 기업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두는 걸 못마땅해하죠.”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유럽은 달라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죠.”

이 관계자의 한탄은 막대한해진 금융의 논

리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어진다. 소위 ‘주주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 계획이나 지속가능성보다는 단기적 수익성을 중심으로 매겨진다. 주주로서 나에게는 당장 100원의 돈을 더 버는 것이 10년 뒤 이 회사의 존립 여부보다 중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종목을 팔

아 돈을 벌고, 내일은 또 다른 종목을 사면 그만이니까. 거대 자본을 쥔 세력들은 기업들에 “가지 투자를 할 돈으로 배당금을 늘리고 주가를 부양하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들 세력은 이 ‘가치’를 바로 팔아치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재와 미



김 버 리 산업부/kimstar1215@

카뮈의 경고 잊었나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논설실
자본시장1부
산업부

(02)799-2669
(02)799-2647
(02)799-2644

정치경제부
자본시장2부
IT중소기업부

(02)799-2663
(02)799-2648
(02)799-2646

사회경제부
금융부
유통바이오부

(02)799-2612
(02)799-2665
(02)799-2641

국제경제부
부동산부
뉴스랩부

(02)799-6741
(02)799-2637
(02)799-2664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코로나 파고에 스타트업이 위험하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공포에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최근 한 달간 3경2000조 원 가까이 줄었다. 국내 증시도 쑥대밭이다. 6만 원을 넘던 국내 1위 삼성전자 주가는 4만 원대 중반으로 주저앉았고, 현대차 주가는 10년 전으로 회귀했다. KT의 주가는 1997년 IMF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동안 세계 증시, 특히 미 증시는 상당히 과대평가된 측면이 많았다. 투자 업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미국 증시가 폭락하기 전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9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0년대 초 닷컴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예일 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경기조정 PER는 당시 32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 전 해인 2007년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결국 버블이 상당히 끼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결정적으로 조정의 발미를 제공했다. 다시 말해 엄청난 버블 상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금융 시장이 급랭하면서 기업들도 초비상이다. 대기업들마저 생산과 투자 모두 급제동이 걸렸다. 다음 차례는 ‘스타트업’이다. 몇 년 동안 국내 스타트업들은 수익이 없음에도 막대한 투자를 받아 성장해 왔다. 몇몇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상당수, 아니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데스크칼럼

최영희

IT중소기업부장



별다른 수익 구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최근 세계 금융 시장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생산과 투자는 울스톱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추가로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스타트업들의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정부의 막대한 돈 쏟아붓기가 한몫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4조 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다. 벤처투자액 증가에 따라 국가별 벤처투자 비교지표인 한국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22%로 상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중국에 이어 4위권이다. 올해는 더 많다. 제2벤처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 1조9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펀드 결성은 총 4조 원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거품’ 붕괴다. 아직까진 잠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풍 속으로 들

어갈 가능성이 크다. 몇 년 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결과가 결실을 맺기 전에 엄청난 버블 붕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닷컴버블 붕괴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의 투자가 휴지조각이 됐고, 그 결과 10년 이상의 벤처 빙하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겨우 살아난 벤처투자가 다시 빙하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새롭게 생겨나는 스타트업들, 이제 자리를 잡고 한 단계 점프해야 할 스타트업들, 죽음의 계곡에 들어선 스타트업들. 거품 붕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최근 몇 년간 가꿔 온 벤처 투자 생태계는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과구르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스타트업들의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몸집 불리기에서 벗어나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왔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부문의 공격적인 투자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스타트업을 위한 긴급단기 운영 자금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제2의 벤처붐을 이끌어갈 특단의 선제 조치가 절실하다.

che@

김면수의 이슈 만화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악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머리에는 황금의 뿔과 관, 등에는 박쥐와 같은 날개를 갖고, 손에는 날카로운 손톱이 나 있는 모습일까.

악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악마에 대해 “만약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곧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모습에 비슷하도록 악마를 만들어냈을 것임이 틀림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악마의 모습은 사람이 되는 셈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악마보다 더한 짓을 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적잖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각에도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일삼는 이들이 여럿이 에는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를 또 다시 보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 씨다.

텔레그램 n번방에 사는 악마

문제는 조모 씨 이외에도 박사방의 시초 격인 일명 ‘n번방’을 운영해 온 일당이 더 있고, 일부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조모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후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이를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 명대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조모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현재 경찰이 확인한 것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무려 74명에 달한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일례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공개’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해당 건은 3월 24일 오전 25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공분이 어느 정도 인지 짐작할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여파는 또 다른 국

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소라넷과 양진호 웹하드 등 성착취 동영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회적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매년 법 개정이 불발됐던 디지털 성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8시 30분 현재 5만4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만일, 이번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이들과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있어 인권을 들먹이는 것은 사치다. 이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이고, 악마의 신상정보는 만천하에 공개돼야 한다. 그레아만 제2 또는 제3의 조모 씨처럼 인간이 악마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tearand76@

사설

기업구호자금 100조, 신속한 현장공급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100조 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지난주 내놓았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규모 50조 원의 2배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제 마비와 한국 경제 추락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과감하고도 과격적인 조치다.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중소·중견 기업에 모두 58조3000억 원의 경영자금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으로 지원되고,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17조8000억 원이 공급된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20조 원 규모로 편성돼 회사채와 기업어음(CP)도 신속인수제도 등을 통해 매일 입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시 안정펀드로 10조7000억 원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가동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문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시중의 ‘돈맥경화’ 현상이 뚜렷하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들까지 신용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과 수출 차질, 실적 악화가 주력산업 우량 대기업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회사채

50조8727억 원 가운데 당장 4월 만기인 6조5495억 원의 차환(借換)발행부터 발등의 불이다. 우량기업이라도 회사채 차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추가 대출, 회사채인수는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용도 높은 대기업들의 자금 흐름이 이미 심상치 않다. 대기업들이 은행들로부터 한도대출을 일으키는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한도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미리 돈을 빼쓰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된 통로였던 회사채발행이 금융시장 냉각으로 여의치 않아진 데 따른 것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기업 대출잔액은 이달 20일 현재 78조6731억 원으로, 2월 말보다 1조7819억 원 늘었다. 2월 전체 증가액(7883억 원)의 2배를 넘는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력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미리 차단해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 일이다. 대기업이 부도나면 연계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다. 결국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으로 틀어막아야 할 공산이 크다. 선제적인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이 현장에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공급됨으로써 기업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집행기관들이 총력을 기울여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세무, 특!

‘n번방’ 범죄수익, 과세 가능할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수익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인면수심 범죄자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n번방’은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회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운영했다. 회원이 최대 26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 규모는 어림잡아 추산해도 상당하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도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 범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전통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학설이 대립한다. 과세를 반대하는 측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세법상 인정하는 것이 돼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의 배분에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처벌에 과세까지 하게 되면 이중의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적법소득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돼 과세 형평에 맞지 않고, 사실

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해 담세력 있는 경우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법소득 역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품을 제외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학설 역시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현행 판례는 위법소득이라 할 지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접하면서 단순 과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후 범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범죄자들이 있고, 범죄행위가 발각돼도 처벌받은 후 여생을 편하게 살겠다는 몰상식한 범죄자들이 있는 만큼 몰수 및 추정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조세 정의가 구현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압도적 1위의 혁신 LG 트루스팀

물을 그대로 끓여 만든 강력한 살균의 트루스팀,
오직 LG전자 건강관리가전에만 있는 No.1의 기술이니까
우리집 건강은 오늘도 안심입니다



2020년
식기세척기 부문
에너지워너상 수상



의류건조기 부문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년 연속 1위



NCSI 2019년 건조기 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가전 부문 11개 제품 1위)



의류관리기 부문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LG DIOS 식기세척기
트루스팀으로 살균세척
식기의 유해세균 바이러스
99.999% 제거



LG TROMM 스타일러
트루스팀으로 살균케어
의류의 유해세균 **99.99% 살균**
바이러스 **99.9% 제거**



LG TROMM 건조기 **STEAM**
트루스팀으로 살균건조
옷감의 유해세균을
99.99% 살균

LG전자 건강관리가전 **STEAM**

스타일러 • 녹농균, 폐렴간균, 대장균을 KS로에 접종한 후 서초 3명의 상/하/후/인쪽 5곳에 부착하여 위생살균(표준)코스 행정 시 99.99% 제거 [한국의과학연구원(KRBS) 시험 결과, 2019.11]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4cm x 4cm 포에 접종한 후 서초 1명의 등 부위 상/중/하, 고내 바닥에 부착하여 위생살균(바이러스)코스 행정 시 평균 제거 효율, 인플루엔자(A, H3N2) 바이러스 99.9% 제거, A, H3N2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실험 결과, 2019.12] • 상기 살균 효과 및 바이러스 제거율은 세균, 바이러스의 종류 및 사용량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99.999% 제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I) SD13 인증, 2019.12] / 발그릇, 국그릇 용기에 군주 접종 후 식기 바구니에 적재하여 표준 (살균세척 옵션포함) 코스 동작 후 세균 감소를 확인 • 장관출혈성대장균(O157:H7), 노로바이러스 99.999% 제거 [세계김치연구소(WKIR) 실험결과, 2019. 9] / 노로바이러스는 휴먼 노로바이러스의 마제미생물인 유인 노로바이러스 결과원 / 유인, 도자기,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용기를 상하단 식기 바구니에 적재 후 표준 (살균세척+스팀 옵션) 코스 동작 후 세균 감소를 확인 • 시험결과로 실제 사용 코스와 사용환경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트루스팀은 DFB22* 제품에 한함 **의류 건조기** • 국제 규격 시험 부하 6.4kg 스팀살균코스 기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시험 결과, 2019.12] • 유해세균(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간균) 99.99% 살균 • 살균 효과는 세균의 종류,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